

서울미술관 운영 결과 보고

2024. 2. 14 — 8. 25

CONTENTS

I. 서울미술관 소개

- I.1. 철학과 비전
- I.2. 연혁
- I.3. MI
- I.4. 운영 규정
- I.5. 조직 및 인력 구성

II. 전시 프로그램

-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 In Dialog 개막식
- II.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 In Dialog 정상화
- II.3 전시 관람자 수치

III. 공식 행사

- III.1 개관식(2/13)
- III.2 개관 기자간담회(2/13)
- III.3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개막식(5/3)
- III.4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기자간담회(5/3)

IV.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 IV.1 어린이 프로그램
- III.2 강연 프로그램
- III.3 전시 연계 프로그램
- III.4 지역 연계 프로그램
- IV.5 프로젝트 전시 《세븐가든즈》
- III.6 한 여름밤의 미술관
- III.7 기타
- III.8 주요 성과

CONTENTS

V. 홍보

- V.1 광고
- V.2 보도자료
- V.3 보도기사
- V.4 SNS

VI. 굿즈

- VI.1 서울미술관 굿즈
- VI.2 전시 굿즈

VII. 시설 관리

- VII.1 공조기 시스템
- VII.2 보안 경비 시스템
- VII.3 소방 시스템
- VII.4 승강기
- VII.5 수변 구간
- VII.6 건물 관리
- VII.7 방역
- VII.8 주차 관리

VIII. 예산 편성 및 운영

- VII.1 예산 개요
- VII.2 수익금 세부 내역
- VII.3 지출 총괄표
- VII.4 전시 지출 세부 내역

IX. 외주 협업사 정보

I. 솔올미술관 소개

I.1 철학과 비전

I.2 연혁

I.3 MI

I.4 운영 규정

I.5 조직 및 인력 구성

1.1 철학과 비전



솔미술관

2024년 2월, 솔미술관은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의 위탁 운영을 통해 그 정체성, 철학, 그리고 비전을 확립하였습니다. '솔'이라는 이름은 미술관이 자리한 지역의 옛 이름으로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인 도시 강릉의 새로운 공공미술관으로 개관한 솔미술관은 지역 문화의 거점을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전시를 선보이며, 미술사의 넓고 깊은 맥락 속에서 동시대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술관 문화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I.1 철학과 비전



마이어 파트너스 건축 작품

서울미술관은 마이어 파트너스(Meier Partners)의 건축 작품으로 현대건축의 거장인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의 건축 디자인과 철학을 보여줍니다. 미술과 건축이 하나로 구상된 미술관으로 형태와 재료, 구성의 단순함,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미술, 자연, 사람이 어우러지는 개방된 공간을 지향합니다. 미술로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서울미술관의 비전은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마이어 파트너스(Meier Partners)의 건축으로 조화롭게 시각화되었습니다.

1.1 철학과 비전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

서울미술관은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여 우리 미술의 미술사적 맥락을 조명하는 미술관으로 국내외 다양한 미술관 및 미술관계 기관과 소통하며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서울미술관은 현대미술사 거장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조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의 미학적 연결성을 찾아내어 우리 미술의 미술사적 가치를 세계미술계에 알리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도시에 품격을 더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

서울미술관은 강릉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습니다. 강릉 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을 즐기고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도시에 예술의 품격을 더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관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1.1 철학과 비전



관람객을 존중하는 서울미술관의 운영 철학

서울미술관은 남다른 운영 방식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실 내에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여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전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미술관 본연의 역할인 깊이 있는 작품 감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스스로 작품을 탐구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도슨트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관람객을 미술 지식의 단순 소비자가 아닌 예술 감상의 능동적 주체로 존중하며, 미술관이 예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2021

11. 11
솔올미술관 위탁 운영
계약 체결

2022

09. 09
아그네스 마틴 전시 게스트 큐레이터
프란시스 모리스 계약 체결

12. 08
솔올미술관 8기 개발

2023

01. 09
루치오폴리나재단 전시 계약 체결

2024

02. 14 — 04. 14
루치오 폴리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05. 04 — 08. 25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09. 30
위탁 운영 종료

I.3 MI (Museum Identity)

SOROL
AM

SOROL
AM

SOROL AM

SO
ROL
AM



Main Color 1
Black
K100



Main Color 2
Orange
Pantone Warm Red C
CO / M80 / Y100 / KO
R255 / G85 / B0



Sub Color 1
Yellow
Pantone Yellow 012 C
CO / MO / Y100 / KO
R255 / G220 / B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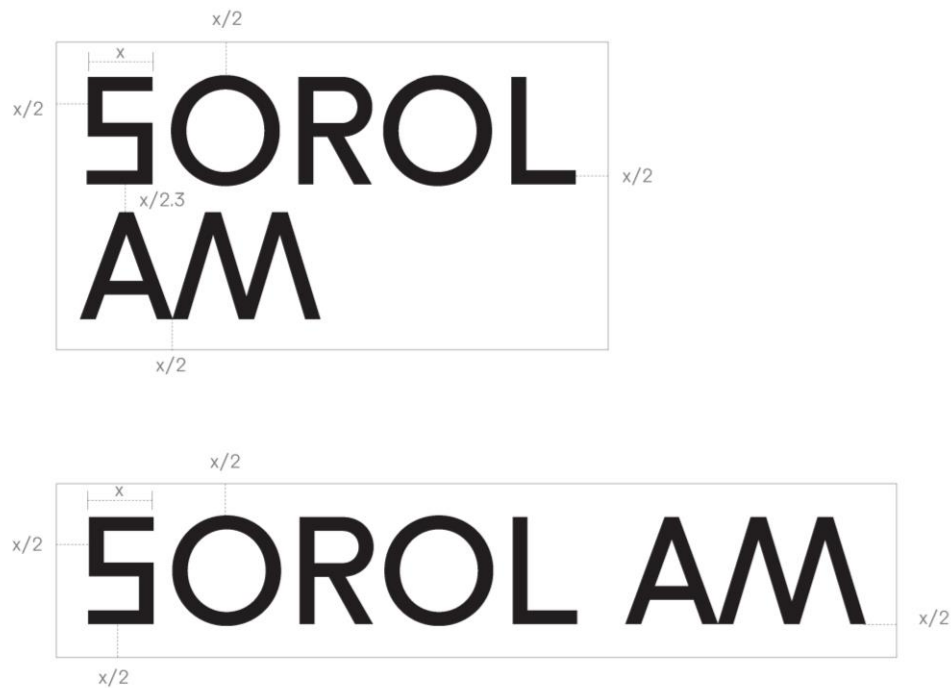
Sub Color 2
Green
Pantone 7480 C
C75 / MO / Y100 / KO
R70 / G190 / B55

로고타입 족약 기본형은 미술관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서울미술관 로고타입 기능을 한다. 메인 로고타입은 좌측정렬의 두줄쓰기를 기본으로 하고 매체에 따라 한줄쓰기를 사용한다.

두줄, 한줄의 좌측정렬을 기본으로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두줄과 세줄의 중앙정렬을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다.

기본 메인 색상은 M.I. 컨셉에 맞춰 미니멀하고 중립적인 검정과 태양과 미래를 상징하는 주황을 주요 색으로 사용한다. 서브 색상은 녹색과 황색으로 강원도 강릉의 자연과 유구한 유산을 의미한다. 일관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 가이드에 규정된 컬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정확한 색표현을 위해 Pantone 색상견본과 대조하여 시각적인 동일 여부를 판단해 사용한다.

I.3 MI



최소 여백 규정과 최소 크기 규정

Minimum Clear Space and Minimum Size

일관된 아이덴티티와 명시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소들의 시각적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독성 확보가 가능한 크기로 표현되어야 한다.

SOROL
AM 10mm

SOROL
AM 16pixel

솔올미술관 아이덴티티를 위해 제작된 솔올체 국영문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의 글자로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컨셉과 상응한다. 모든 미술관 매체에 사용되는 글자는 솔올체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솔올체는 노멀(Normal)과 캐릭터(Character) 두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캐릭터 서체는 사선의 형태가 드러나면서 역동적인 강한 인상을 남긴다. 가독이 중요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멀을, 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매체에는 캐릭터를 사용한다. 알파벳의 두께는 레귤러(Regular)와 라이트(Light) 두 개의 무게 구성이고 한글은 라이트(Light)만 존재한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Regular Normal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Regular Normal Oblique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Regular Characte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Regular Character Oblique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

5RK Light Normal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

5RK Light Characte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Light Normal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Light Normal Oblique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Light Characte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5OROL Light Character Oblique

1.4 운영 규정

운영시간

하절기 (5월-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 (11월-4월) 오전 10시-오후 6시

※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발권 및 입장 가능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하며 그 다음 평일 휴관

관람요금

전시관람권 1만 원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입장

주차요금

무료 (2시간 이내 출차 권장)

할인대상

- 어린이 (만4세-만12세) 50%
- 청소년 (만13세-만18세) 30%
- 만 65세 이상 30%
- 강릉시민 30%
-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30%
- 군인 (병사에 한함, 직업 군인 제외) 30%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30%
- 예술인패스 소지자 30%
- 제휴사 할인 30% (씨마크호텔, 라카이샌드파인)

무료대상

- 36개월 이하 영유아, 유공자 (부부),
유공자유족 (본인), 참전용사 (부부),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공무수행자

단체관람

15인 이상 단체관람은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예약
(info@sorolartmuseum.org, 033-641-3376)

편의시설 및 서비스

카페, 물품 보관소, 수유실, 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유의사항

- 작품 감상에 최적화된 전시문화 조성을 위해 전시실 내 촬영은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전시실에서는 작품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미술관의 모든 공간은 금연 구역입니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 세 미만 아동은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미술관 내 음식물 반입과 안내견 외 반려동물 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시실 입장 전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 전시 작품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낭 및 백팩은 물품 보관함에 넣어 주십시오.
- 바퀴 달린 신발을 신은 분은 전시실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5 조직 및 인력 구성



II. 전시 프로그램

-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 II.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 II.3. 전시 관람자 수치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기간	2024년 2월 14일 ~ 4월 14일
장소	서울미술관 전시실 1 & 2
주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협력	루치오 폰타나 재단(Fondazione Lucio Fontana)
후원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Ambasciata d'Italia Seoul)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Istituto Italiano di Cultura di Seoul)
전시 부문	공간환경 설치 작품 6점, 회화 12점, 조각 9점(총 27점)

II. 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꼭인식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솔움미술관이 개관전으로 준비한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은 「공간주의 - 제1차 공간주의 선언」 발표 이후 본격화된 폰타나의 공간주의 미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가는 오로지 형태와 색, 소리의 조형성을 공간에 담아내고, 거기에 감상자의 움직임을 더해 작품을 4차원으로 확장하는 시도를 했다. 그 결과 1947년 빛을 이용해 공간개념으로 작품을 확장시킨 〈공간 환경〉(Ambiente spaziale) 연작이 탄생했다. 또한 폰타나는 전통 회화가 지닌 평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캔버스에 구멍을 내거나 칼자국을 낸 〈뚫기〉(Buchi)와 〈베기〉(Tagli) 연작을 통해 자신의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e)을 발전시키면서 현실의 물리적인 공간을 작품의 미학적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소개되었던 공간 주제 작품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 환경〉 여섯 작품을 선보인다. 물질성을 넘어 빛과 공간으로 확장된 폰타나의 작품으로 초대된 감상자는 작품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꼭인식

In Dialog 꼭인식



기간	2024년 2월 14일 ~ 4월 14일
장소	서울미술관 전시실 3
주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전시 부문	회화 및 조각 20점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In Dialog 객인식



‘In Dialog’는 “세계의 미술과 한국의 미술을 연결”하고자 하는 서울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전시 프로젝트로, 세계 현대미술의 주요 맥락을 조명하는 서울미술관의 기획전시와 미학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의 현대미술을 함께 소개한다.

1919년 한국에서 태어난 객인식은 193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을 전공했고, 서구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경험했다. 객인식은 조현실주의, 앵포르멜, 폰타나의 공간주의 등 195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미술의 주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탐구했고,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미술언어를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감행했다. 1960년대 초 재료의 물질성에 집중한 객인식은 화면에 변형을 가하거나 돌이나 유리, 철판 등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해 작품을 창작했다.

두 미술가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객인식의 몇몇 작품은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주의(Spatialism) 작업과 미학적 연상작용을 일으킨다. 폰타나가 평면성을 벗어나 시공간으로 작품을 확장시키고자 캔버스를 찢었다면, 객인식은 ‘물질성의 탐구’에 집중하며 철 구슬로 유리판을 깨뜨리거나 동판을 찢고 다시 봉합했다. 이들 작품의 방법론적 유사성은 충분히 비교해볼 만 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두 작가의 작업 세계는 전통과 물질성이라는 주제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폰타나는 물리적으로 유한한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과 빛, 경험 자체로 작품을 확장시킨 반면, 객인식은 “사물의 말을 듣는다”라는 작가의 표현처럼 재료 자체에 수행적 행위를 가하며 고유한 감각으로 물성을 깊이 탐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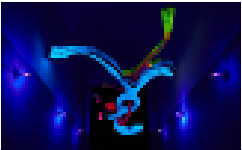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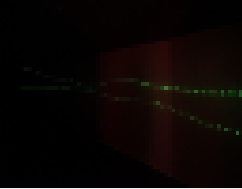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전시 스케줄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작품 리스트: 루치오 폰타나 (공간환경)

	48-49 A2	1948-49/ 2017	Ambiente spaziale a luce nera	Papier-mâché, fluorescent paints, and Wood lights
	51 A1	1951/2017	Struttura al neon per la IX Triennale di Milano	Glass tube and neon
	64 A2	1964/2017	'Utopie', nella XIII Triennale di Milano	Corridor painted in black with curved walls; black linoleum flooring; 2 rows of backlit holes lit with green neon tubes
	67 A5	1967/2017	Ambiente spaziale con neon	Red neon and fabric-covered room (pink)
	67 A6	1967/2017	Ambiente spaziale a luce rossa	Painted wood, glass tubes, neon, and mixed media
	68 A2	1968/2017	Ambiente spaziale in Documenta 4, a Kassel	White maze-like space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작품 리스트: 루치오 폰타나 (공간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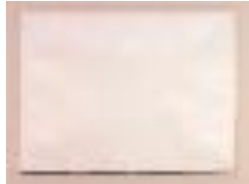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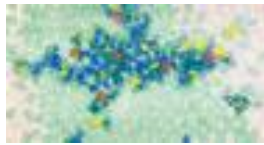
	49 B 2	1949	CONCETTO SPAZIALE, ATTESE	natural linen paper, white	100 x 100
	50 B 9	1950	CONCETTO SPAZIALE	tin	72 x 65,5
	51 B 17	1951	CONCETTO SPAZIALE	oil and sand on canvas, blue and silver	60 x 59
	52 B 36	1952	CONCETTO SPAZIALE	oil and glitter on linen paper, grey, red, blue	79,2 x 79,2
	59 T 109	1959	CONCETTO SPAZIALE, ATTESE	water-based paint on canvas, white	68 x 108
	59 T 74	1959	CONCETTO SPAZIALE, ATTESE	water-based paint and oil on canvas, gold shape on a black and white background	81 x 100

	59 T 16	1959	CONCETTO SPAZIALE, ATTESE	aniline on canvas, yellow	100 x 100
	62 ME 18-19-20	1962	[CONCETTO SPAZIALE], NEW YORK 10	copper with tears and graffiti	234 x 94 (each panels)
	58 T 3	1958	Concetto spaziale, Attese	holes and slashes on canvas	97,5 x 130,5
	65 B 6	1965	CONCETTO SPAZIALE	water-based paint on canvas, light blue, light blue (idropittura su tela, azzurro, azzurro)	197 x 198
	68 T 120	1968	CONCETTO SPAZIALE, ATTESE	water-based paint on canvas, white	74 x 60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작품 리스트: 확인식

	작품 63-G	1963	유리	53,5 * 38,6
	작품 63-W	1963	패널 위에 유리	45,3 * 53
	작품 65-6-3	1965	동판	92 * 99
	작품 65-5-1	1965	동판, 동철사	100 * 107
	샘(돌)	1968	패널에 동판	162 * 130 (2)
	작품 1969	1969	종이	55 * 75

	무제	1979	종이	58 * 77,5 F 67 * 87 * 4,5
	Work 81-C	1981	캔버스 위 종이에 채색	164,5 x 227
	작품 85-BG	1985	종이에 채색	96,5 x 180
	무제	1960년대 초	패널에 석고, 유리그릇	45 * 53
	무제	1959	종이에 석고, 유채	45,5 * 37,9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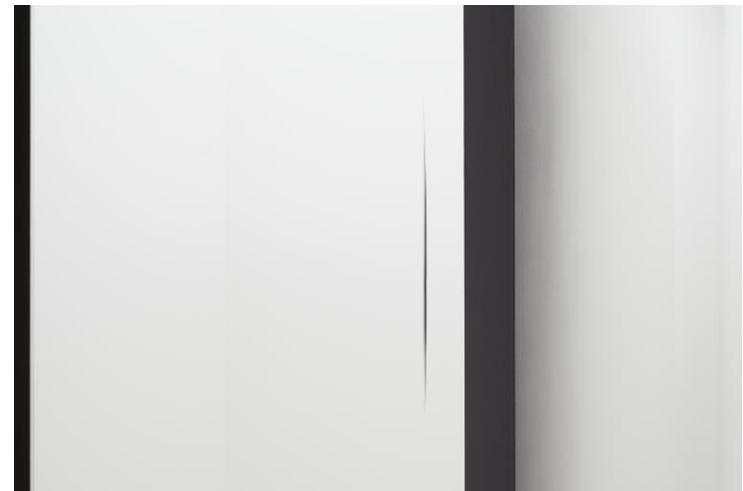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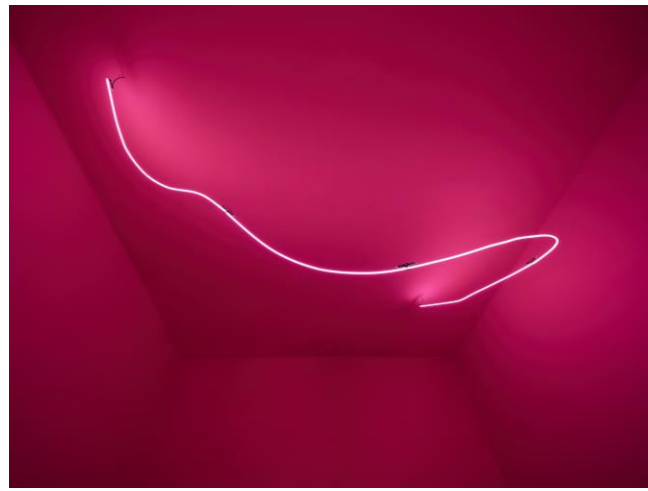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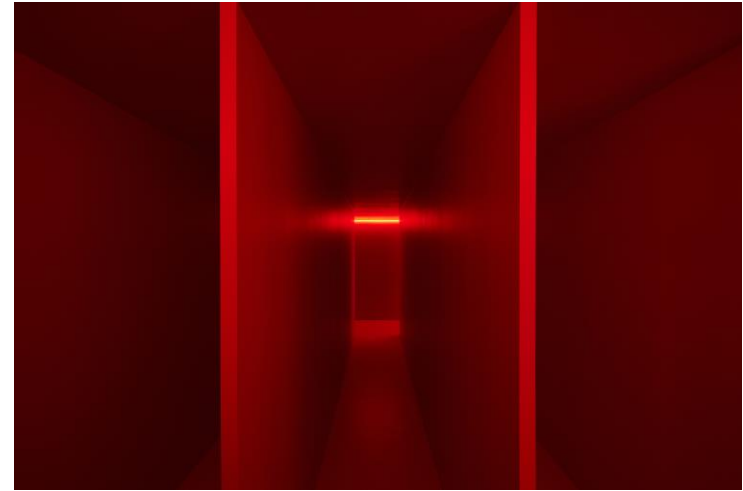
작품 리스트: 확인식

	무제 1976	1976	돌	22 * 29 * 16
	무제	1980s	도기	9 * 10 * 10
	무제	1979년대 중반	돌	3 * 13 * 11
	작품 1978	1978	도기	0.5 * 16 * 22

	무제	1970년대 말	도기	2.5 * 24 * 2.5
	무제	1981	도기	4 * 5 * 5
	무제	1981	도기	1 * 11.5 * 11.5
	무제 1981	1981	도기에 먹	22.5 * 14 * 14
	무제 1981	1981	도기에 먹	5 * 14 * 14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전시 전경 사진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전시 홍보물

온라인	- 미술관 웹사이트 - SNS 용 포스터
오프라인	- 전시 리플렛 - 미술관 소개 리플렛 - 입구 현수막 -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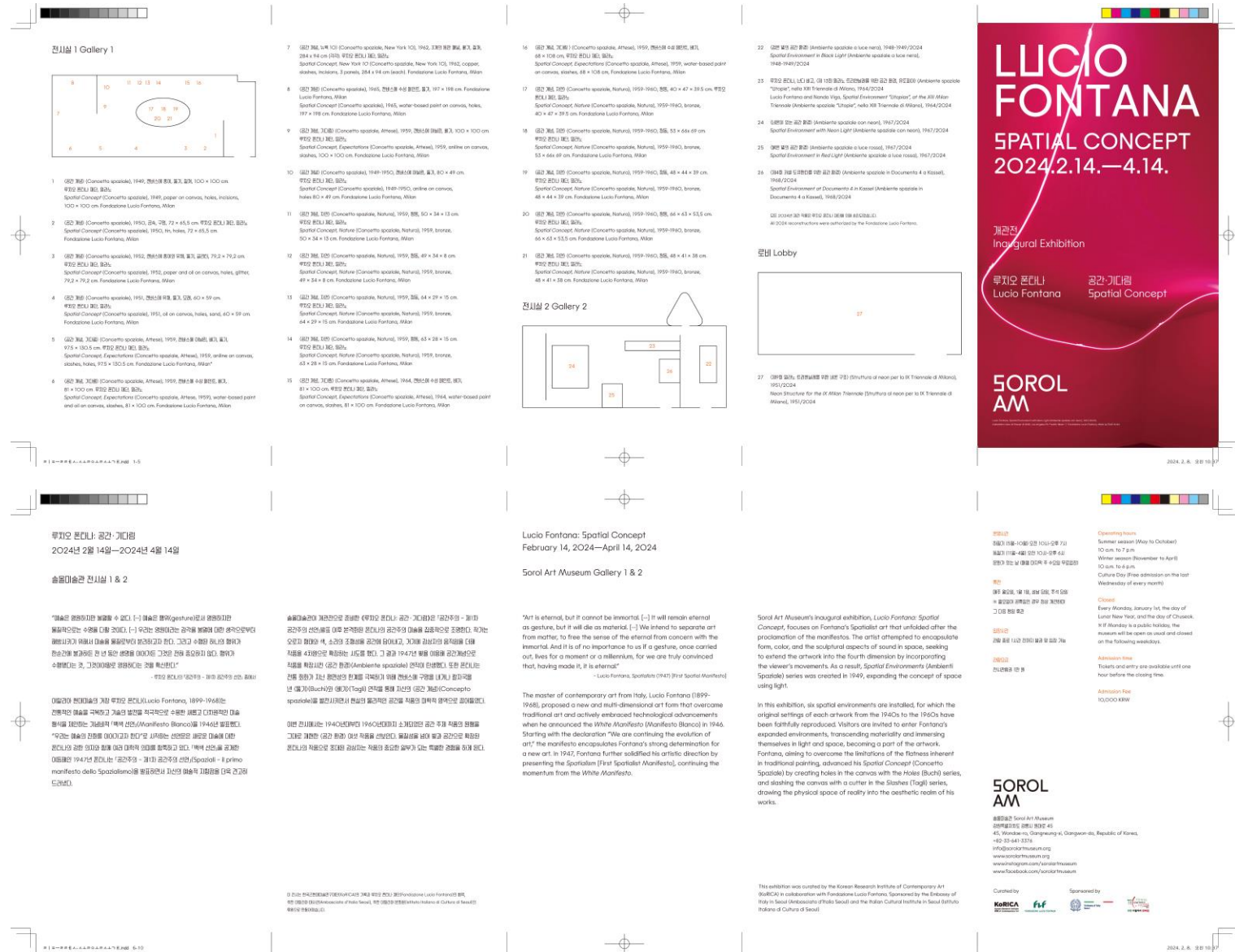
리플렛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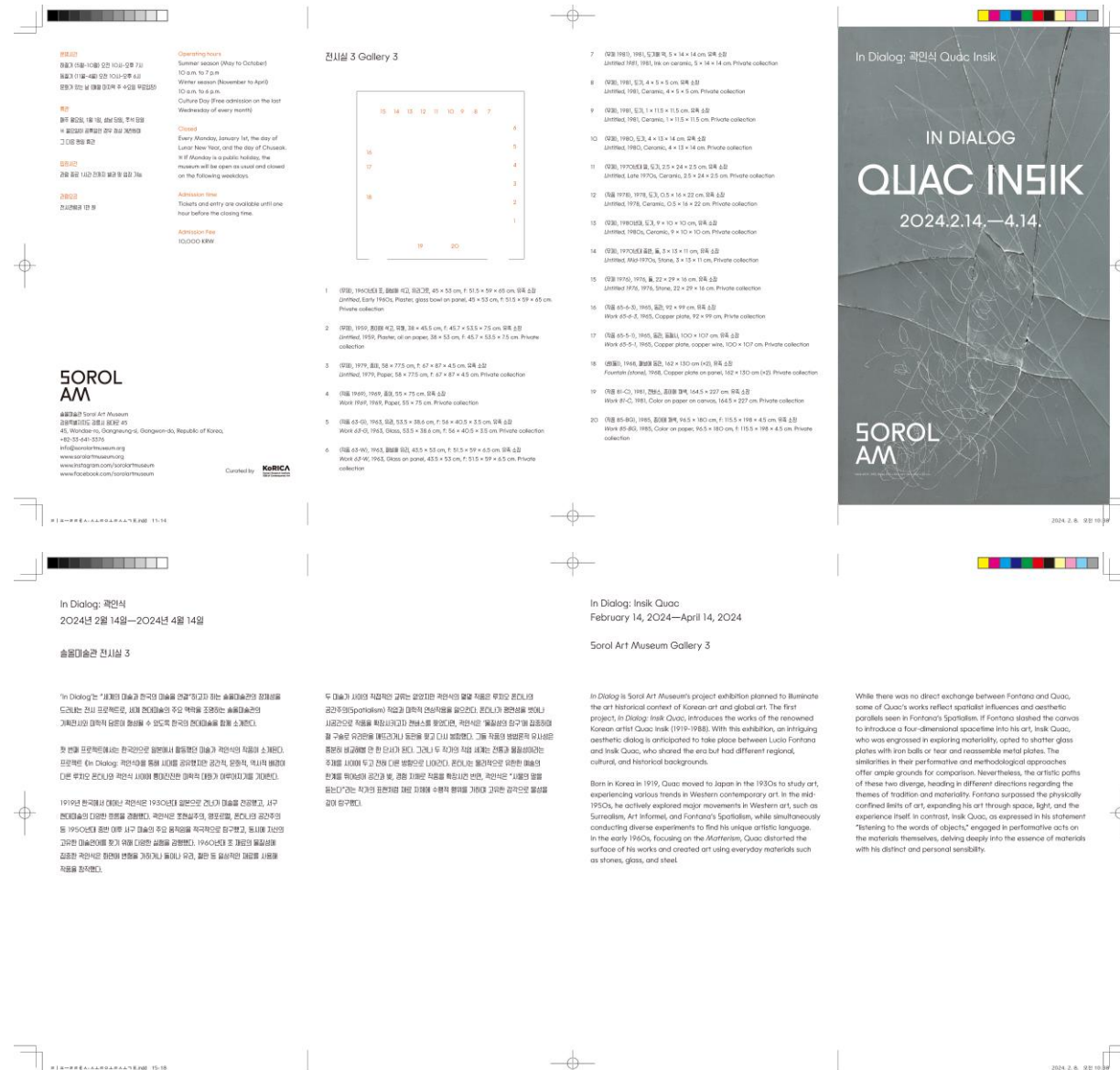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콕인식

전시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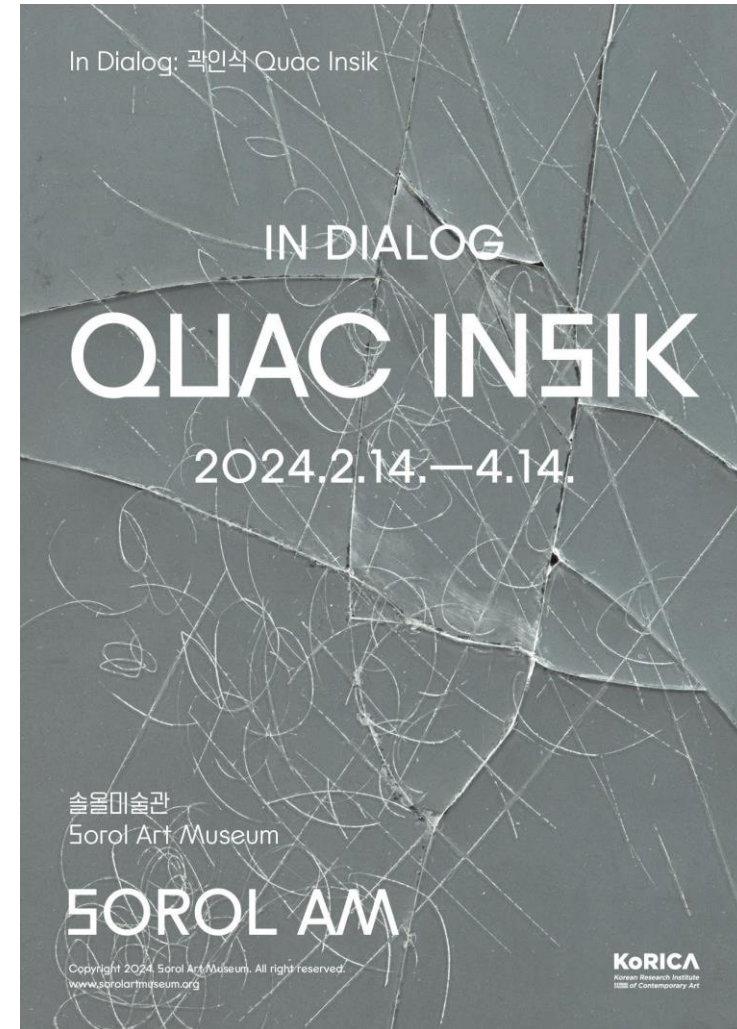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전시 리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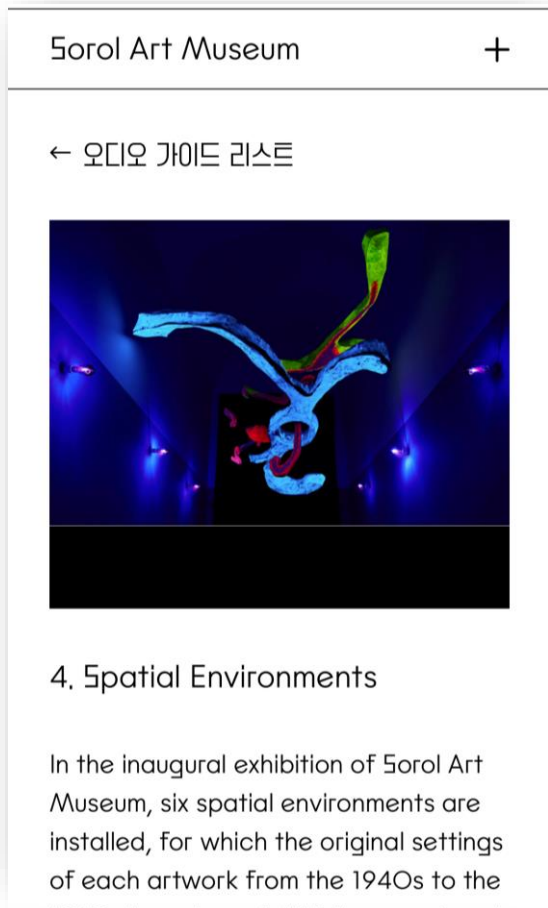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콕인식

포스터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오디오 가이드



운영	- 휴대폰에서 QR 코드로 접근 - 전시장 입구에 QR 코드 설치 - 개인 이어폰 사용 혹은 이어폰 대여	
파일	[루치오 폰타나] 1. 전시 소개 -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2. 작가 소개 - 루치오 폰타나 3. 공간 개념(Concetto spaziale) 4. 공간 환경(Ambiente Spaziale)	[곽인식] 전시 소개 - In Dialog: 객인식 2. 작가 소개 - 곽인식 3. 객인식의 재료: 종이, 유리 4. 객인식의 재료: 철 5. 객인식의 점화
조회수	[루치오 폰타나] - 한국어: 4014 회 - 영어: 446 회	[곽인식] - 한국어: 2227 회 - 영어: 341 회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확인식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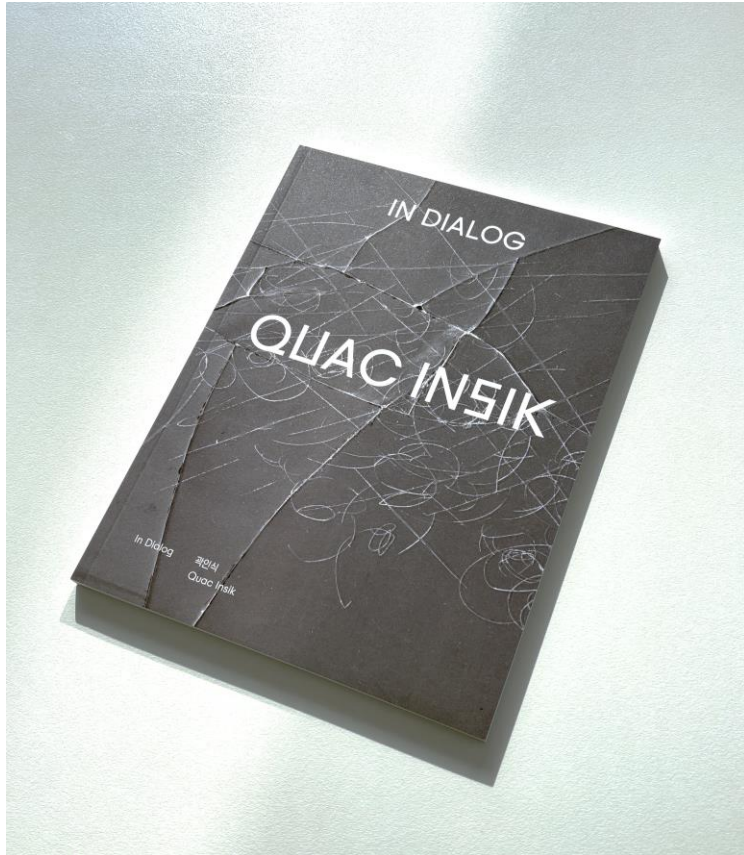


목차

8	인사말	박명자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이사장
10		실비아 아르데마니 루치오 폰타나 재단 대표
12		미켈라 린다 마그리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16	에세이	김석모 철학박사 전후(戰後) 현대미술과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주의'
28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 루치오 폰타나-공간주의의 기원: 새로운 아방가르드
53	도판	
146	선언문	공간주의 - 제1차 공간주의 선언(1947)
148		우리는 예술의 매체를 진화시킨다. 공간주의 기술 선언(1951)
157	연보	마리아 빌라
169	전시 작품 목록	

II.1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객인식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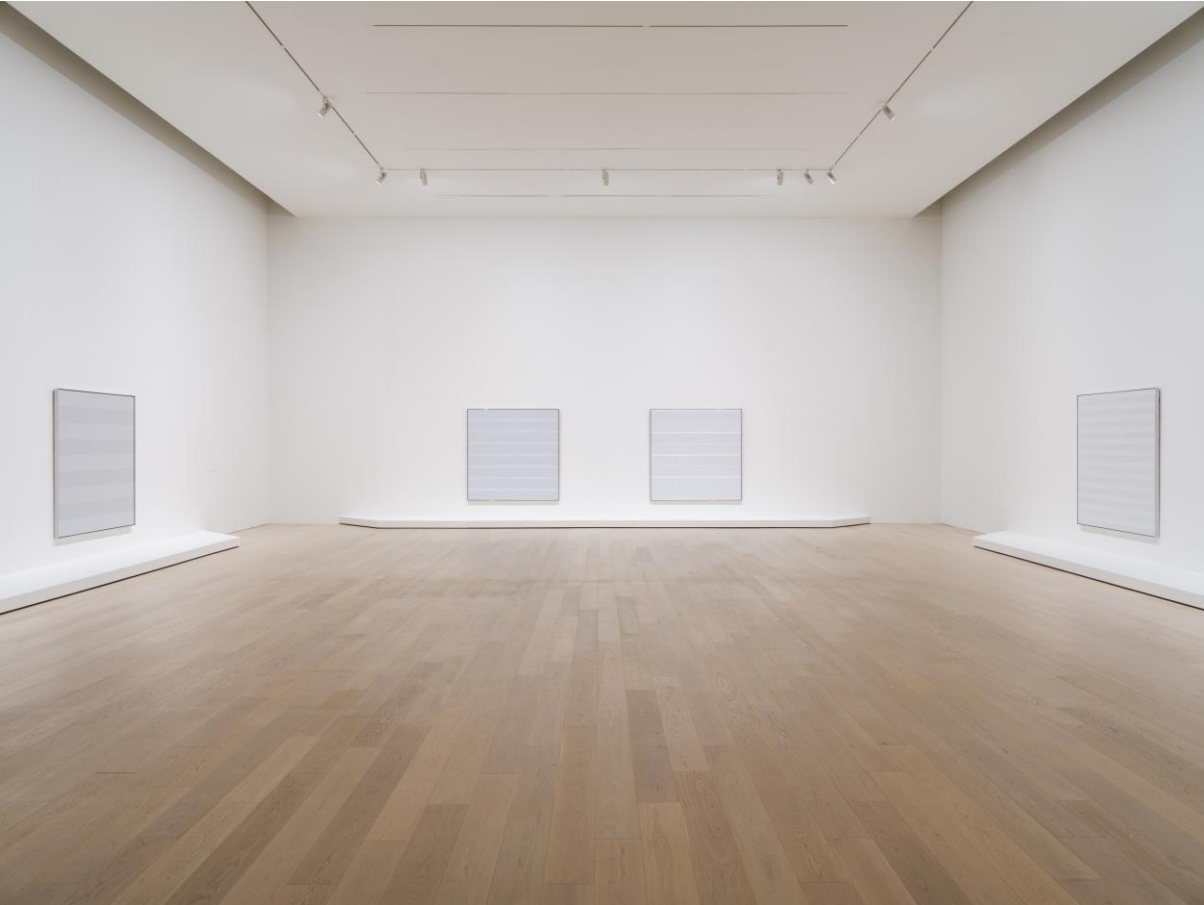


목차

4	전시 서문
6	에세이 객인식의 표현과 활동 — 백림
17	도판
	부록
68	뉴아트/테크닉: 와시(和紙), 그 무언의 외침
69	사물의 말을 듣다 — 객인식
123	연보
123	전시 작품 목록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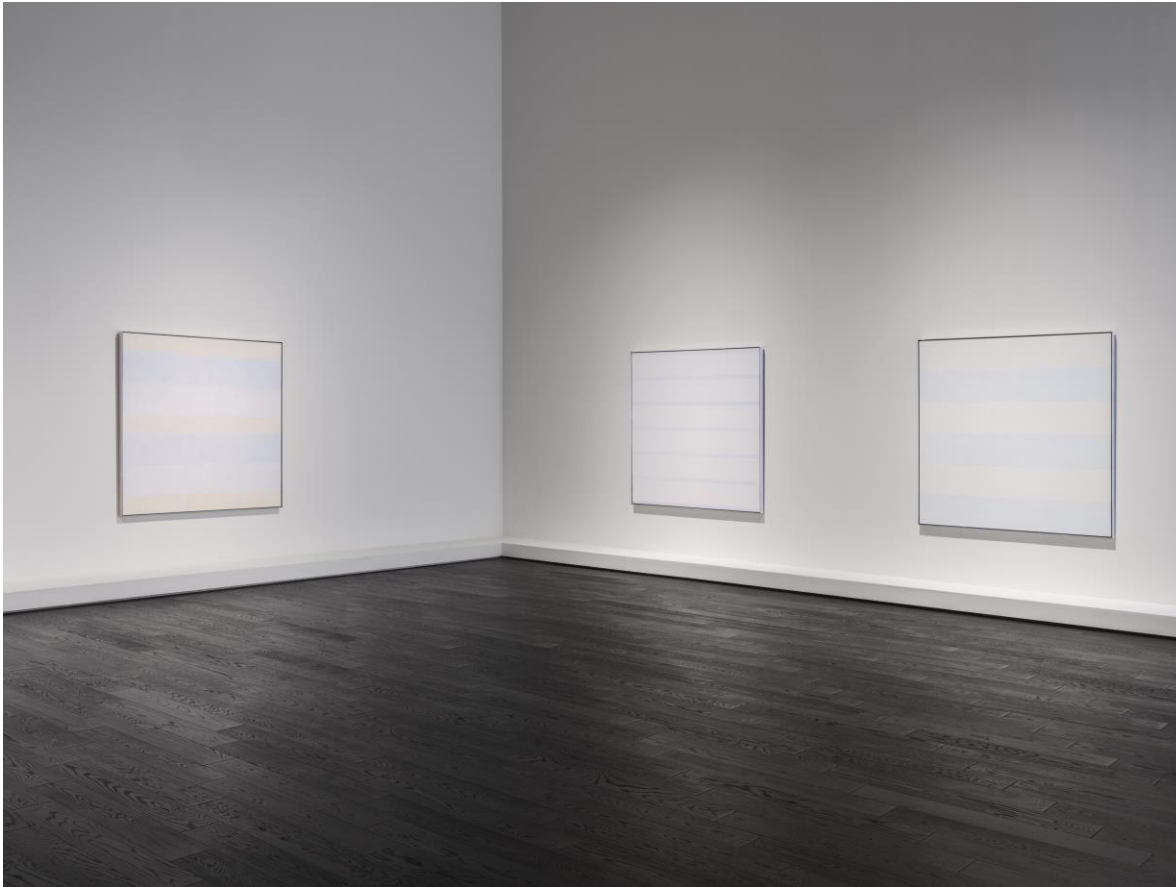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기간	2024년 5월 4일 ~ 8월 25일
장소	솔올미술관 전시실 2 & 3, 세미나실
주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초청 기획자	프란시스 모리스(Frances Morris)
대여기관	디아파운데이션(8), 페이스갤러리(회화 4 & 프린트 30), 휘트 니뮤지엄(3), 리움 미술관(3) 조지예코노무컬렉션(2), 오사카국립미술관(1), 나고야시미술관(1), 개인소장(1)
전시부문	회화 24점, 실크스크린 프린트 30점, 영상 1편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은 미국에서 순수 추상을 추구했던 아그네스 마틴의 작업 세계를 조명하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미술관 전시이다. 아그네스 마틴은 컬럼비아대학 시절 접한 동양의 선불교,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작업하였고,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아방가르드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전개되었다. 이 전시는 아그네스 마틴의 작업세계를 동양의 정신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최초의 전시이다.

아그네스 마틴의 그림은 감상자에게 느린 보기의 기회를 선사한다. 침묵, 씻겨 나간 색채, 부드럽게 흐러지는 그림의 테두리, 열정적인 연필 자국 등 마틴의 세심한 작업 과정을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아그네스 마틴은 항상 본인의 작품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작품을 자전적 경험과 의미, 혹은 삶에 대한 통찰과 관계짓기를 꺼렸다. 그녀는 오히려 '미술의 가치는 보는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한 편의 작품을 보는 경험에 대해 마틴은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바다의 파도나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구름처럼 항상 변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에 비유한다. 그것은 곧 반복적이고 사색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행복을 자아내는 그리고 아그네스 마틴 자신과 관객에게 '완벽의 순간들'을 창출하는 경험이다.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In Dialog 정상화



기간	2024년 5월 4일 ~ 8월 25일
장소	서울미술관 전시실 1
주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전시 부문	회화 13점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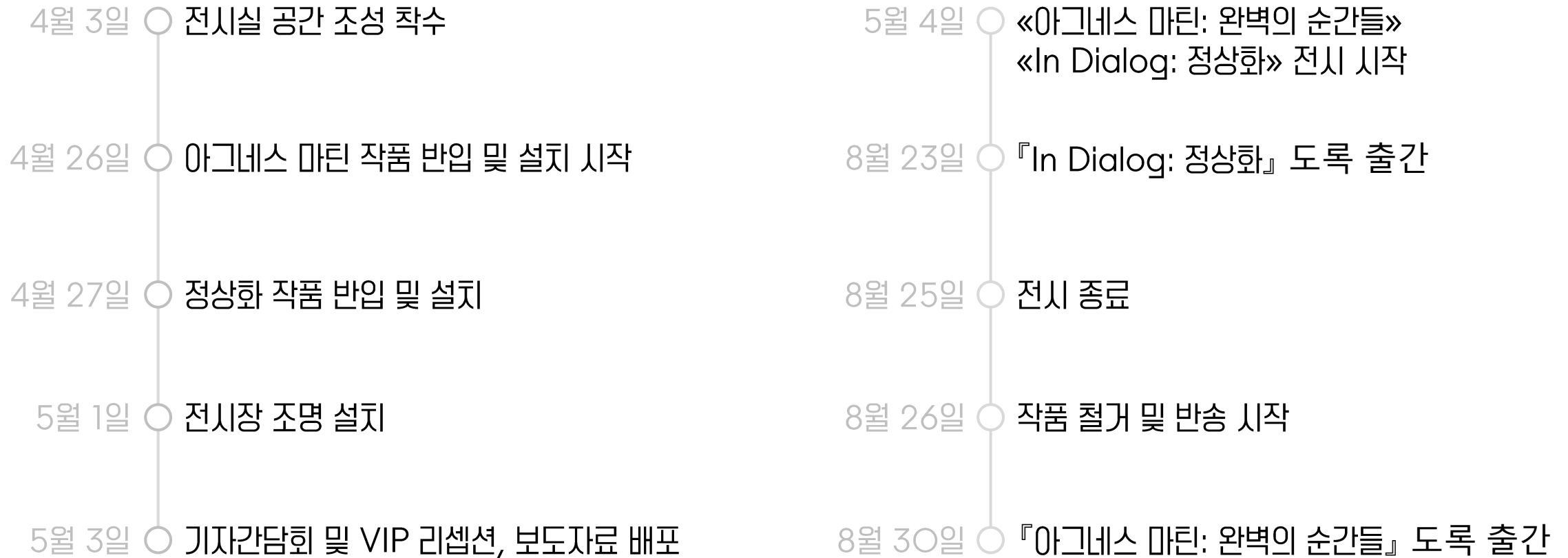
인 다이얼로그(In Dialog)는 세계미술과 한국미술의 미술사적 맥락을 연결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 프로젝트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루치오 폰타나와 곽인식의 만남이 이루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아그네스 마틴과 정상화의 작품이 대화를 이어간다.

한국의 단색조 추상 회화를 대표하는 정상화의 작품은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과 함께 논의할 만하다. 아그네스 마틴이 명상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시적 감수성이 넘치는 회화적 언어로 표현할 무렵, 한국에서는 아방가르드한 실험미술과 함께 수행성이 강조된 단색조 추상회화가 중요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었다.

1960년대, 전위적이고 저항적인 미술 실험에 적극 동참한 정상화는 오랜 기간 일본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현대미술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직접 경험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작가의 작업세계가 집약적으로 농축된 백색의 기하학적 추상이 화면 위에 나타난다. 이 전시에서는 정상화의 작품세계와 아그네스 마틴과의 미학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가장 절제되고 정제된 백색추상의 대표작들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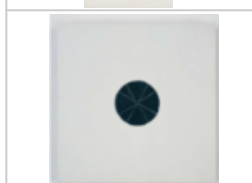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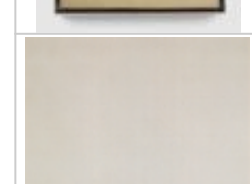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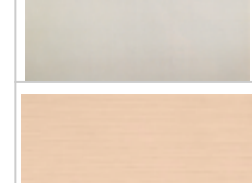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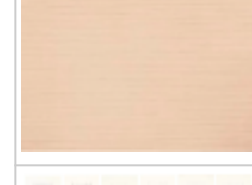
전시 스케줄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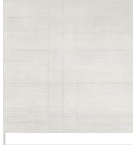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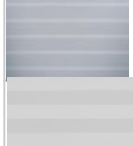
작품 리스트: 아그네스 마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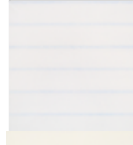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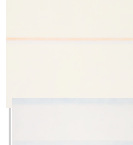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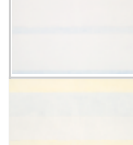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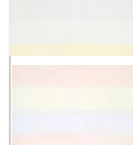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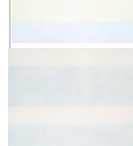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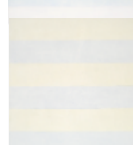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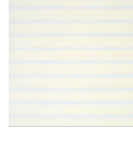
	Untitled	1955	Oil on canvas	118.1 x 186.3	Pace (Glimcher)
	Untitled	1957	Oil on canvas	121.9 x 182.9	Pace (Glimcher)
	Heather	1958	Oil on canvas	177.8 x 177.8	Pace (Glimcher)
	Untitled	1959	Oil and graphite on canvas	120.7 x 60.3	Pace (Glimcher)
	Untitled	1959	Oil on linen	30.5 x 30.5	Pace (Private)

	Untitled	1962	Oil, ink, and nails on canvas mounted on wood	24.8 x 24.8 x 2.5	Private
	The Tree	1964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90.5 x 190.5	Leeum Samsung Museum
	Mountain II	1966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x 182.9 (184.2 x 184.2 w/ frame)	George Economou Collection
	On a clear day	1973	Portfolio of 30 silkscreen prints on Japanese rag paper	30.5 x 30.5 each	Pace (Glimcher)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작품 리스트: 아그네스 마틴

	Untitled #11	1977	Acrylic and graphite on linen	183.2 x 183.2	Whitney
	Untitled #5	1985	Acrylic on canvas	182.9 x 182.9 (184.2 x 184.2 w/ frame)	George Economou Collection
	Triumph	1985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x 182.9	Leeum Samsung Museum
	Untitled #3	1987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x 182.9	Leeum Samsung Museum
	Untitled #10	1988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x 182.9	National Museum Osaka
	Untitled #5	1990	Acrylic on linen	183 x 182.9	Whitney
	Untitled #9	1990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6 x 182.6	Whitney
	Untitled #3	1992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x 182.9	Nagoya City Art Museum

	Contentment (Innocent Love series)	1999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52.4 x 152.4 (154.4 x 154.4 x 5.1 w/frame)	Dia Art Foundation
	Happiness (Innocent Love series)				
	Innocent Happiness (Innocent Love series)				
	Innocent Living (Innocent Love series)				
	Where Babies Come From (Innocent Love series)				
	Innocent Love (Innocent Love series)				
	Love (Innocent Love series)				
	Perfect Happiness (Innocent Love series)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작품 리스트: 아그네스 마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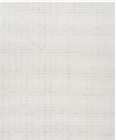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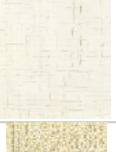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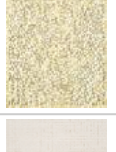
<아그네스 마틴: 세상을 등지고>
Agnes Martin: With My Back to the World

2002
메리 랜스 감독 다큐멘터리
컬러, 스테레오, 57분
New Deal Film, Inc.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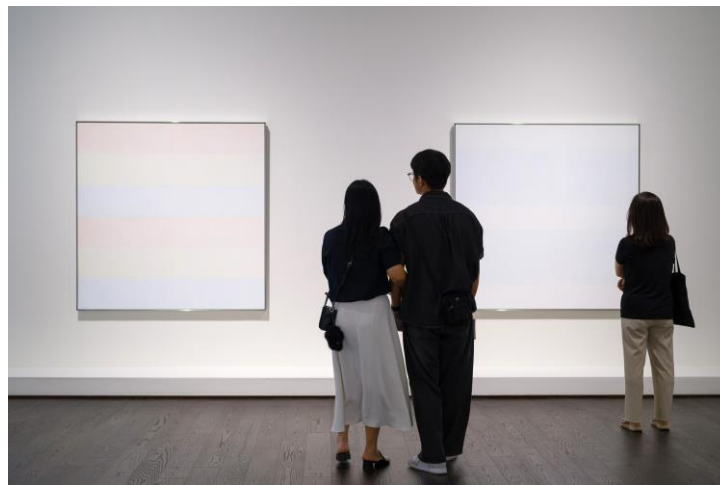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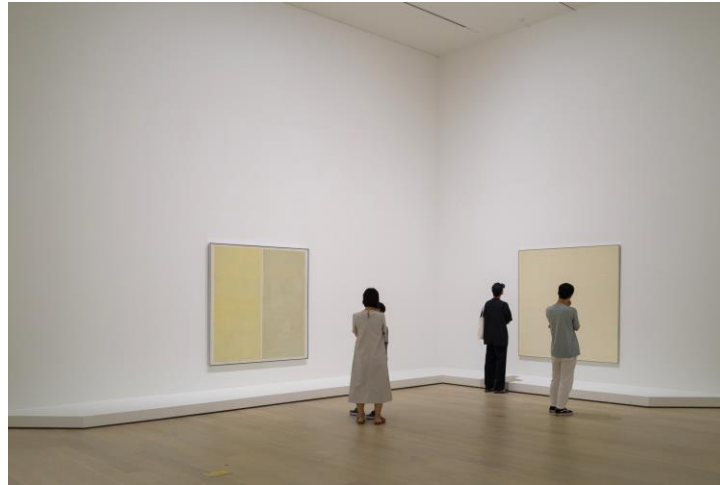
작품 리스트: 정상화

	Work 12-11	227,3 x 182	1973	Acrylic on canvas
	Untitled 74-6	227 x 181	1974	Acrylic on canvas
	Untitled 75-10-8	80,5 x 65,5	1975	Acrylic on canvas
	Untitled 76-8	227,3 x 181,8	1976	Acrylic on canvas
	Untitled 81-8-7	162 x 97	1981	Acrylic on canvas
	Untitled 82-5-21	162,2 x 97	1982	Acrylic on canvas

	Untitled 98-3-12	162,2 x 130,3	1998	Acrylic on canvas
	Untitled 06-2-7	259,1 x 193,9	2006	Acrylic on canvas
	Untitled 2014-2-12	259,1 x 193,9	2014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Untitled 2016-3-7	130 x 97	2016	Acrylic on canvas
	Untitled 017-10-25	227,3 x 181,8	2017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Process-5	130,3 x 97	2017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Untitled 018-11-2	130,3 x 97	2018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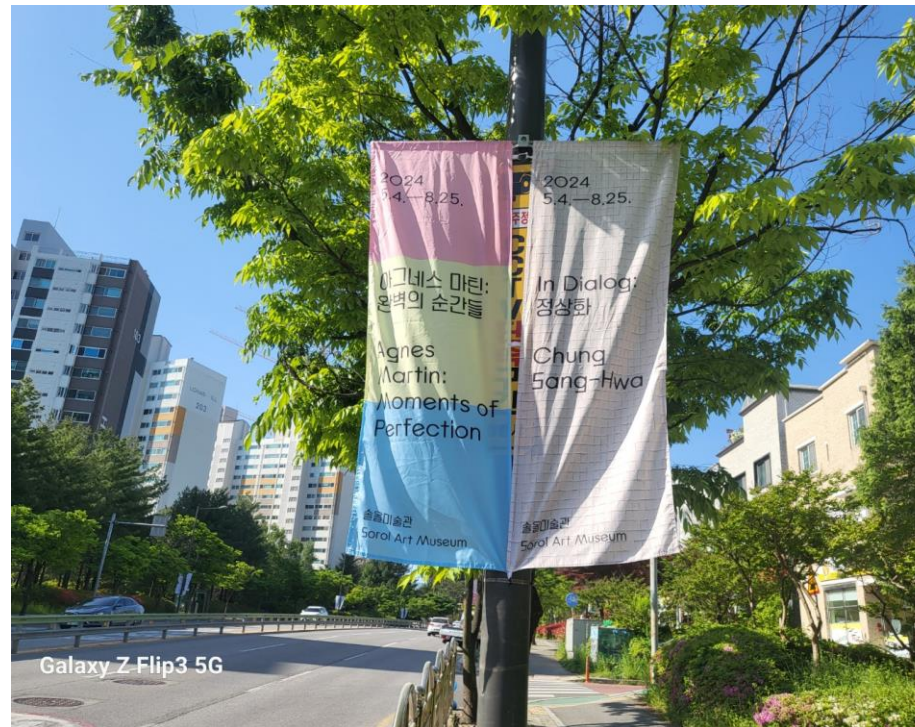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홍보물

온라인	- 미술관 웹사이트 - 5N5 용 포스터
오프라인	- 전시 리플렛 - 미술관 소개 리플렛 - 입구 현수막 - 가로등 배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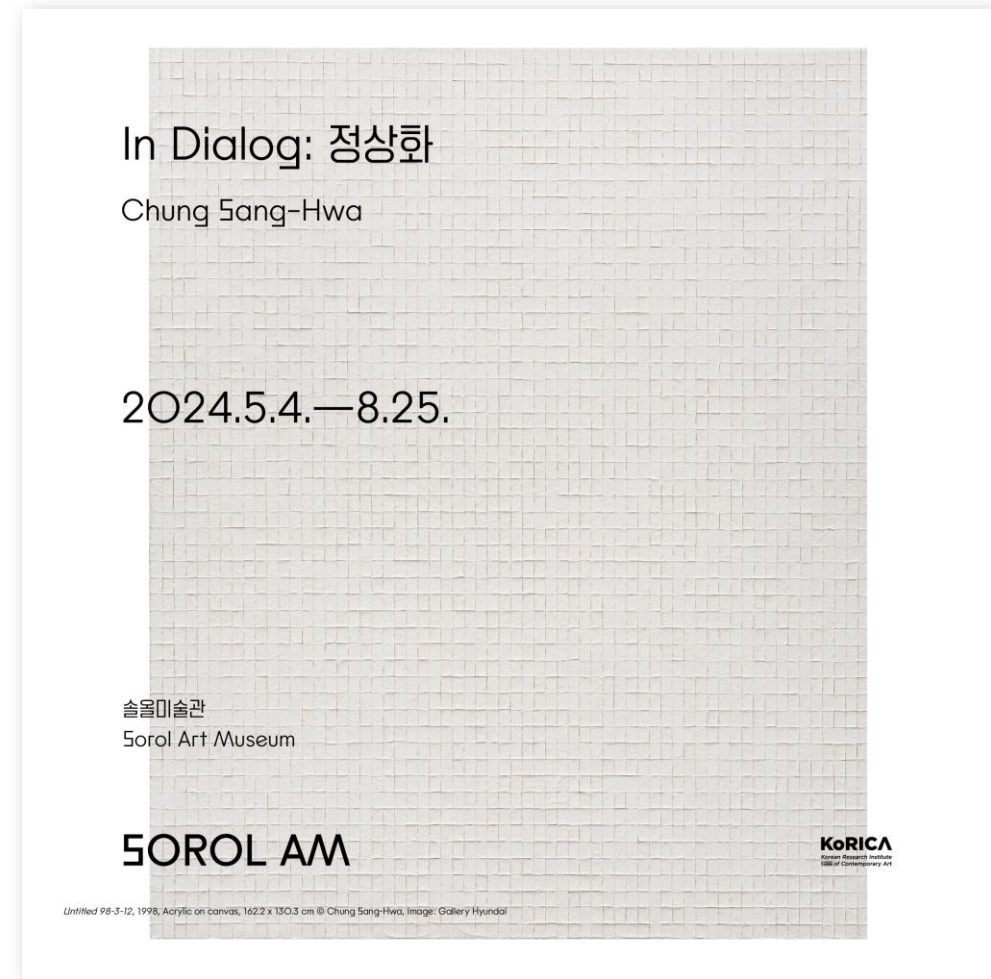


가로등 배너



입구 현수막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온라인 포스터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리플릿

전시실 2 Gallery 2

1 (무제, c. 1959, 캔버스에 유채, 연필, 120.7 × 60.3 cm, 페이스 갤러리)
Untitled, c. 1959, Oil and graphite on canvas, 120.7 × 60.3 cm, Pace Gallery

2 (무제, 1955, 캔버스에 유채, 금속 물감, 118.1 × 168.3 cm, 페이스 갤러리)
Untitled, 1955, Oil and metallic paint on canvas, 118.1 × 168.3 cm, Pace Gallery

3 (무제, c. 1957, 캔버스에 유채, 연필, 121.9 × 182.9 cm, 페이스 갤러리)
Untitled, c. 1957, Oil and graphite on board, 121.9 × 182.9 cm, Pace Gallery

4 (무제, 1959, 캔버스에 유채, 30.5 × 30.5 cm, 페이스 갤러리)
Untitled, 1959, Oil on linen, 30.5 × 30.5 cm, Pace Gallery

5 (무제, 1962, 캔버스에 부착된 캔버스에 유채, 잉크, 못, 24.8 × 2.5 cm, 개인 소장)
Untitled, 1962, Oil, ink, and nails on canvas mounted on wood, 24.8 × 2.5 cm, Private collection

6 (헤더, 1958, 캔버스에 유채, 177.8 × 177.8 cm, 페이스 갤러리)
Heather, 1958, Oil on canvas, 177.8 × 177.8 cm, Pace Gallery

7 (산 II, 1964,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조지 에코노무 컬렉션)
Mountain II, 1964,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 182.9 cm, George Economou Collection

8 (산무, 1964,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90.5 × 190.5 cm, 리움 미술관)
The Tree, 1964,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90.5 × 190.5 cm, Leeum Museum of Art

9 (하늘 맑은 날, 1973, 일본 종이에 실크스크린 프린트 포스터 30점, 30.5 × 30.5 cm (각), 페이스 갤러리)
On A Clear Day, 1973, Portfolio of 30 silkscreen prints on Japanese Rag paper, 30.5 × 30.5 cm (each), Pace Gallery

10 (무제 #11, 1977,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휘트니 미술관)
Untitled #11, 1977, Acrylic and graphite on linen, 183.2 × 183.2 cm,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1 (승리, 1985,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리움 미술관)
Triumph, 1985,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 182.9 cm, Leeum Museum of Art

12 (무제 #5), 1985, 캔버스에 아크릴, 182.9 × 182.9 cm, 조지 에코노무 컬렉션)
Untitled #5, 1985, Acrylic on canvas, 182.9 × 182.9 cm, George Economou Collection

13 (무제 #3), 1987,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리움 미술관)
Untitled #3, 1987,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 182.9 cm, Leeum Museum of Art

14 (무제 #10), 1988,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오사카 국립현대미술관)
Untitled #10, 1988,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 182.9 cm,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15 (무제 #5), 1990, 캔버스에 아크릴, 182.9 × 182.9 cm, 휘트니 미술관)
Untitled #5, 1990, Acrylic on linen, 182.9 × 182.9 cm,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6 (무제 #9), 1990,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휘트니 미술관)
Untitled #9, 1990,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6 × 182.6 cm,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17 (무제 #3), 1992,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82.9 × 182.9 cm, 나고야 도시 미술관)
Untitled #3, 1992,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9 × 182.9 cm, Nagoya City Art Museum

전시실 3 Gallery 3

1 (사랑) Love

2 (충만) Contentment

3 (순수한 삶) Innocent Living

4 (행복) Happiness

5 (순수한 행복) Innocent Happiness

6 (완벽한 행복) Perfect Happiness

7 (순수한 사랑) Innocent Love

8 (여자들이 오는 곳) Where Babies Come From

‘순수한 사랑’ 연작, 1999, 캔버스에 아크릴, 연필, 152.4 × 152.4 cm, 디아아트 재단)
Innocent Love series, 1999,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52.4 × 152.4 cm, Dia art Foundation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시리즈, 2003
제작: 앤스 김, 디아아트 재단)
제작, 스테레오, 57분
New Deal Films, Inc.™

Agnes Martin: With My Back to the World, 2003
Documentary by Mary Lance
Color, stereo, 57 minutes
New Deal Films, Inc.™

아그네스 마틴 (1912-2004)

Agnes Martin, 1992 © 2021 Timothy Greenfield-Sanders

아그네스 마틴은 1912년 캐나다의 사스캐치완주에서 태어났다. 1931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과 뉴멕시코 산토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기근했다. 1950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마틴은 본격적으로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으며, 1960년대 이후 미국 미술계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성장했다. 당시 마틴은 앤드 워홀, 로버트 라우센, 잭슨 폴록, 앨버트 뉴먼과 교류하였다. 순수 주성(主性)을 추구한 마틴의 작품은 종종 미니멀리즘의 맥락에서 논의되기도 했으나 마틴은 모더니즘 작가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뉴멕시코주에서 홀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대화(대화)를 예술(예술)로 발전시켰다. 또한 철저한 명상으로 아형(아형)과 순수(순수)의 완벽(완벽)을 추구했다. 그의 명상적이고 서정적인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마틴은 2004년, 92세의 나이로 뉴멕시코주 산토스에서 세상을 떠났다.

Agnes Martin (1912-2004)
Born in Saskatchewan, Canada, in 1912, Agnes Martin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31, where she studied and taught art between New York and Taos, New Mexico. After gaining U.S. citizenship in 1950, she began working full-time as an artist and became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American art in the 1960s and beyond, corresponding with Ad Reinhardt, Ellsworth Kelly, and Barnett Newman, among others. While Martin's pursuit of pure abstraction has often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Minimalism, she herself has shied away from the label of formalist modernism. From the late 1960s onward, she lived alone in New Mexico, where she developed her own endlessly varied artistic language, pursuing the perfection of beauty and purity within a discipline of restraint. Martin's contemplative and tranquil works have transcended time and touched many viewers. In 2004, s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2 in Taos, New Mexico.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AGNES MARTIN

Moments of Perfection

2024.5.4.—8.25.

SOROL AM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리플릿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2024년 5월 4일—2024년 8월 25일
솔로미술관 전시실 2 & 3, 세미나실(영화 상영)
게스트 큐레이터 프랜시스 모리스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은 순수 추상을 추구한 미국 작가 아그네스 마틴의 작업 세계를 조명하는 한국에서의 첫 미술관 전시이다. 아그네스 마틴은 칼럼비아대학 미술 선별교과도 교수를 겸했고 이는 그의 작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이방가르드한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번 전시는 마틴의 작업을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편, 그녀의 실험적이고 영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아시아 작가의 작업과 나란히 두고 서로의 관계와 동조성을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는 1955년, 아그네스 마틴이 구상 회화를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시기 마틴의 작업은 유기적이고 생체적인 형태를 벗어나 원형, 삼각형, 사각형과 같이 좀 더 형식적이고 기하학적인 언어와 차분한 색상으로 옮겨간다. 1950년대 후반에는 대상의 재현과 모방이 사라지고 다양한 선과 격자 형태가 나타난다. 1964년에 제작된 〈나무〉(The Tree)는 마틴의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이고 미니멀한 작품이다.

1967년, 아그네스 마틴은 뉴욕에서의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여행을 떠났다. 이후 1974년부터 뉴멕시코주 시골 마을인 타오스에 은둔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여 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이 시기 마틴은 영성을 통해 얻은 ‘영감’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며 고유한 이미지를 찾아갔다. ‘완벽함’을 추구한 마틴은 작품의 크기, 색상, 기법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색과 선을 무한히 반복하고 변주하며 화면을 채웠다.

1977년에서 1992년 사이 제작된 회색 모노크롬 회화는 마틴의 전체 작업 중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작품들이다. 전시에서 소개되는 예술 점의 회색 모노크롬 작품은 작가가 철저한 재현 안에서 형태, 색조, 질감의 무한한 변주를 보여주며 미학적 절정을 경험하게 한다.

끝으로 전시는 아그네스 마틴이 삶의 마지막 10년 동안 몰입했던 시리즈를 소개한다. 1993년 건강상의 이유로 양로원에서 지내던 마틴은 매일 작업실을 찾으며 붓을 놓지 않았다. 몸이 쇠약해지며 작품 크기도 줄었다. 1999년 제작된 예술 점의 연작 ‘순수한 사랑’ (Innocent Love)에 대해 마틴은 고요한 명상 속에서 떠오른 이미지를 그린 것이라고 말했다. 회색 모노크롬 작품들과 달리 반투명한 광채와 기쁨, 예전에 담긴 ‘순수한 사랑’ 시리즈와 함께 마틴의 예술 여정은 끝을 맺는다.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은 감상자에게 느리게 보는 기회를 선사한다. 감상자는 침묵, 빛과 나란 색채, 부드럽게 흐려지는 테두리, 열정적인 연필 자국 등 마틴의 세심한 작업 과정을 고요히 가운데 천천히 음미할 수 있다. 마틴은 자신의 작품은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작품들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미, 삶에 대한 통찰과 연결 짓는 것을 꺼려 했다. 작품의 가치는 감상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마틴은 한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에 대해 말하고 빠져나가는 때도, 하늘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것은 곧 반복적이고 사색적이며, 시간을 초월하고 행복을 지니는 경험, 그리고 아그네스 마틴과 관객에게 ‘완벽의 순간들’을 선사하는 경험이다.

Agnes Martin: Moments of Perfection

May 4, 2024—Aug 25, 2024
Sorol Art Museum Gallery 2 & 3, Seminar Room (Film screening)
Curated by guest curator Frances Morris

Agnes Martin: Moments of Perfection is the first exhibition in Korea of a North American artist whose pursuit of pure abstraction was informed by Zen Buddhism and Taoism that she engaged with from her student years. Her abstract works coincide with the development of monochrome painting - *Dansaekhwa* - in Korea, and audiences will, for the first time, be able to focus on Martin's work from an Eastern perspective.

This exhibition begins its exploration of Martin's career in 1955 when she began to shed obvious figurative references from her compositions. Her painting moved from a vocabulary of organic and biomorphic shapes to a more formal and geometric language, often featuring circles, triangles, and rectangles. By the end of the 1950s Martin had removed all figurative references from her compositions and was experimenting with different linear and grid formats. *The Tree*, 1964, is among her most radical and minimal works from this period.

In 1967 Martin stopped painting for over half a decade, leaving New York to travel alone before retreating to the relative solitude of New Mexico. On her return to the studio in 1974 she worked in much the same manner for the three decades until her death in 2004. During these decades Martin found her imagery through what she called 'inspiration', the images for her paintings coming to her through a form of meditation. While standardizing the size of her canvases and reducing her tools and materials to a minimum she found 'perfection' in the infinite number of variations she could achieve.

The extensive series of grey-monochrome canvases Martin painted between 1977 and 1992 are amongst the most enigmatic and beautiful of Martin's work and a careful selection of eight contrasting canvases will represent, and evoke, the myriad formal, tonal and textual variations Martin achieved within her self-imposed restrictions.

Paintings from the last decade of Martin's life provide a final focus to the exhibition. In 1993 Martin moved into a retirement home in Taos, New Mexico, and while continuing to visit her studio every day she worked on a slightly reduced scale more suited to her diminishing physical strength. Martin often spoke of how her late images were conceived during moments of quiet meditation. 'Innocent Love', 1999 represents the last and probably the most sustained serial works in Agnes Martin's career. In contrast to the opacity of so many of the grey paintings, Martin's 'Innocent Love' paintings are both translucent and luminescent, with joyous, celebratory titles.

Martin's paintings offer the viewer an opportunity for slow looking - for exploring, in silence, the wash of colour, the soft blurring of the edges, and the febrile touch of her pencil - evidence of her meticulous process. Martin asserted that 'The value of art is in the observer', and she likened the experience of looking at her art to listening to music. When she did comment on the experience of looking at a single work, she compared it to watching the ebb and flow of waves on the sea or the movement of the clouds across the sky, always changing but also essentially the same: repetitive, meditative, timeless, capable of generating happiness, of creating for Martin - and for the viewer - 'moments of perfection'.

운영시간
하절기 (5월-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 (11월-4월) 오전 10시-오후 6시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하며 그 다음 평일 휴관

입장시간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발권 및 입장 가능

관람요금
전시관람권 1만 원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무료 입장)

Opening hours
Summer season (May to October)
10 a.m. to 7 p.m.
Winter season (November to April)
10 a.m. to 6 p.m.

Closed
Every Monday,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e day of Chuseok.
※ If Monday is a public holiday, the museum will be open as usual and closed on the following weekdays.

Door open
The ticket issue and entrance are available until 1 hour before closing.

Admission Fee
10,000 KRW
Culture Day (Free admission on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오디오 가이드



Audio Guide

SOROL AM

솔로미술관 Sorol Art Museu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영대동 45
45, Wondae-ro,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82-33-641-3376
info@sorolartmuseum.org
www.sorolartmuseum.org
www.instagram.com/sorolartmuseum
www.facebook.com/sorolartmuseum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리플릿

운영시간

하절기 (5월~10월) 오전 10시~오후 7시
동절기 (11월~4월) 오전 10시~오후 6시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하며
그 다음 평일 휴관

입장시간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발권 및 입장 가능

관람요금

전시관람권 1만 원
문항이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50% 할인)

Operating hours

Summer season (May to October)
10 a.m. to 7 p.m.
Winter season (November to April)
10 a.m. to 6 p.m.

Closed

Every Monday,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e day of Chuseok.
※ If Monday is a public holiday, the
museum will be open as usual and closed
on the following weekdays.

Admission time

Tickets and entry are available until one
hour before the closing time.

Admission Fee

10,000 KRW
Culture Day (50% discount on the last
Wednesday of every month)



오디오 가이드



Audio Guide

SOROL AM

서울미술관 Sorol Art Museu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45
45, Wondae-ro, Gangneung-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82-33-641-3376
info@sorolartmuseum.org
www.sorolartmuseum.org
www.instagram.com/sorolartmuseum
www.facebook.com/sorolartmuseum

전시실 1 Gallery 1



- | | |
|---|--|
| 1 <무제 75-10-8>, 1975, 캔버스에 아크릴,
80.5 x 65.5 cm
Work 12-11, 1973, Acrylic on canvas,
227.3 x 182 cm | 7 <무제 2016-3-7>, 2016, 캔버스에 아크릴,
130 x 97 cm
Untitled 2016-3-7, 2016, Acrylic on
canvas, 130 x 97 cm |
| 2 <무제 81-8-7>, 1981, 캔버스에 아크릴,
162 x 97 cm
Untitled 81-8-7, 1981, Acrylic on canvas,
162 x 97 cm | 8 <무제 018-11-2>, 2018, 캔버스에 아크릴, 고향토,
130.3 x 97 cm
Untitled 018-11-2, 2018,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130.3 x 97 cm |
| 3 <무제 82-5-21>, 1982, 캔버스에 아크릴,
162.2 x 97 cm
Untitled 82-5-21, 1982, Acrylic on canvas,
162.2 x 97 cm | 9 <무제 06-2-7>, 2006, 캔버스에 아크릴,
259.1 x 193.9 cm
Untitled 06-2-7, 2006, Acrylic on canvas,
259.1 x 193.9 cm |
| 4 <무제 98-3-12>, 1998, 캔버스에 아크릴,
162.2 x 130.3 cm
Untitled 98-3-12, 1998,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 10 <무제 2014-2-12>, 2014, 캔버스에 아크릴,
고향토, 259.1 x 193.9 cm
Untitled 2014-2-12, 2014,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259.1 x 193.9 cm |
| 5 <무제 017-10-25>, 2017, 캔버스에 아크릴,
고향토, 227.3 x 181.8 cm
Untitled 017-10-25, 2017,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227.3 x 181.8 cm | 11 <무제 76-8>, 1976, 캔버스에 아크릴,
227.3 x 181.8 cm
Untitled 76-8, 1976, Acrylic on canvas,
227.3 x 181.8 cm |
| 6 <과정-5>, 2017, 캔버스에 아크릴, 고향토,
130.3 x 97 cm
Process-5, 2017, Acrylic and kaolin on
canvas, 130.3 x 97 cm | 12 <무제 74-6>, 1974, 캔버스에 아크릴,
227 x 181 cm
Untitled 74-6, 1974, Acrylic on canvas,
227 x 181 cm |
| | 13 <작품 12-11>, 1973, 캔버스에 아크릴,
227.3 x 182 cm
Work 12-11, 1973, Acrylic on canvas,
227.3 x 182 cm |



정상화 (1932-)

1932년 경상북도 영덕에서 출생한 정상화는 중학교 재학 시절 우연한 계기로 미술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서울대학교 미술학교에 입학하였고, 1957년 인천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화가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갔다. 현대미술가협회와 약육연의 회원으로 활동하던 정상화는 기존 회화의 틀과 형식을 과감하게 깨뜨리며 영포른열 경향의 미술 실험에 몰두했다. 1967년에는 파리에서 재류하며 구미 현대미술의 최신 경향을 제독한 후, 1969년 일본으로 떠나 1977년까지 고베에 머물며 활동했다. 이 시기 정상화는 일본의 급진적인 미술가 그룹 '구단아'(具團阿)의 리더 요시하라 지로와 친밀한 교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본 활동 시기 정상화의 작품은 에너지 넘치는 영포른열에서 단색조의 추상화향로 점진적인 화풍 변화가 일어난다. 1973년 이후부터는 유기적인 형태가 사라지고 화면이 격자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파리와 일본에서도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작품 활동을 펼쳤고, 1992년 귀국하여 활발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Chung Sang-Hwa (1932-)

Born in 1932 in Yeongdeok, Gyeongsangbuk-do, South Gyeongsang province, Chung Sang-Hwa began studying art by chance in middle school, and enrol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s art department in 1953, at the height of the Korean War. In 1957, while working as a teacher at Incheon Teachers' College, he had continued his art practice. A member of the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Hyeondae misulga hyeopoe) and Actuel, he boldly broke with the conventions and formats of traditional painting and experimented with Art Informel tendencies. In 1967, he spent time in Paris, where he was exposed to the latest trends in Western contemporary art, before traveling to Japan in 1969, where he lived and worked in Kobe until 1977. During this time, he developed a close friendship with Yoshihara Jiro, the leader of the radical Japanese artist group Gutai. The work he produced during his time in Japan shows a gradual shift in style from energetic Art Informel to monochromatic abstraction. From 1973 onward, organic forms disappear and his canvases begin to be divided into grids. Since then, he has been active in Paris and Japan, work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e returned to Korea in 1992, where he continues to work actively.

In Dialog: 정상화 Chung Sang-Hwa

In Dialog CHUNG SANG-HWA

2024.5.4.—8.25.

SOROL AM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전시 리플릿

In Dialog: 정상화

2024년 5월 4일—2024년 8월 25일
서울미술관 전시실 1

인 다이얼로그(In Dialog)는 세계미술과 한국미술의 미술사적 맥락을 연결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 프로젝트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루치오 폰타나와 객인식의 만남이 이루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아그네스 마틴과 정상화의 작품이 대화를 이어간다.

한국의 단색조 추상 회화를 대표하는 정상화의 작품은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과 함께 논의할 만하다. 아그네스 마틴이 영상으로부터 얻은 영감을 시작 감수성이 넘치는 회화적 언어로 표현할 무렵, 한국에서는 아방가르드한 실험미술과 함께 수행성이 강조된 단색조 추상회화가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고 있었다.

1960년대, 전위적이고 저항적인 미술 실험에 적극 동참한 정상화는 오랜 기간 일본과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현대미술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직접 경험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작가의 작업세계가 집약적으로 농축된 백색의 기하학적 추상이 화면 위에 나타난다. 이 전시에서는 정상화의 작품세계와 아그네스 마틴과의 미학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가장 절제되고 정제된 백색추상의 대표작들을 선별하여 소개한다.

느린 속도로 작품을 감상하면 화면 위 서로 연결된 작은 사각의 경계에서 들끓는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고요하고 차분하며 정적이고 명상적인 색의 변주 앞에서 감상자의 시선은 깊이 빠져든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정상화가 취하고 있는 고요하고 독특한 회화 기법과 무관하지 않다. 매지 않은 캔버스에 순백의 고풍도를 덮어 바른다. 꾸덕꾸덕해진 캔버스를 가로세로 주름잡듯 접고 꺾어 금이 가면 뜯어내고 그 자리를 아크릴 물감으로 메운다. 바르고 말리고 꺾고 접고 뜯고 메우는 과정이 반복의 반복을 거치면서 정상화 고유의 평면이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정상화의 작품은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림이다. 작업은 작가의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지만 마치 스스로 형태를 찾아가듯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균형, 완벽한 형태에 이르면 작가의 손은 멈추고 작품은 완성된다.

정상화는 자신의 창작행위를 ‘일’이라 칭한다. 창작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작가의 태도가 엿보인다.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도 덧붙이거나 채우기보다 덜어내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평면에서 평면을 찾아들어가 끝 없이 활 의미나 특정한 내러티브를 담지 않는다. 드러내고 메우는 과정의 순한 반복을 통해 평면 속에 깃들여 있는 무한대의 평면을 밝힌다. 그만큼 작업의 과정과 작업 중 이루어지는 행위가 결정적이다. 하나의 색 안에 녹아 있는 뉘앙스를 달리하는 무수한 색 그리고 시각적 촉각을 유발하는 미묘한 결의 움직임은 ‘하나의 전체’로 경험된다.

In Dialog: Chung Sang-Hwa

May 4, 2024—Aug 25, 2024
Soro Art Museum, Gallery 1

In Dialog is Soro Art Museum’s second exhibition project designed to engage a conversation between the art historical contexts of international and Korean art. *In Dialog*, which brings together the works of Agnes Martin and Chung Sang-Hwa, follows the broader series’ first encounter between Lucio Fontana and Quac Insik.

Representative of Dansaekhwa, Korea’s monochrome abstract painting movement, Chung Sang-Hwa’s body of work makes a worthy companion to Agnes Martin’s. Around the same time that Agnes Martin was expressing her inspiration from meditation in a painterly language full of poetic sensitivity, monochromatic abstract painting with an emphasis on performance was building an important movement in Korea alongside avant-garde experimental art.

Having spent much of his life in Japan and France, Chung was one of the leading abstract painters in Korean contemporary art, and actively engaged in the avant-garde and rebellious artistic experimentation of the 1960s. By the 1970s, he had developed the white geometric abstractions that distilled and concentrated his oeuvre on canvas. This exhibition presents a selection of Chung’s most restrained and refined white abstractions as a way of exploring his work and its aesthetic relationship with Agnes Martin’s.

The viewer that absorbs the pieces at a slower pace may feel the depth that emerges from the boundaries between the small interconnected squares on the canvas. They may find their gaze reaches the depths of the serene, calm, static, and meditative variations of color. This immersive experience is born of the unique and distinctive painting technique deployed by Chung. The unstretched canvas is covered with a layer of pure white kaolin. The gooey canvas is then folded and bent along horizontal and vertical axes. Where cracks appear on the canvas, the dried clay is torn away and the spaces filled in with acrylic paint. This process of applying, drying, bending, folding, tearing, and filling is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revealing Chung’s signature surface. The paintings created through this process are not painted, but rather made. The work begins with the artist’s meticulous planning, but then expands spontaneously, as if settling into its own form. When it reaches perfect harmony, perfect balance, and perfect form, the artist steps away and the work is complete.

Chung Sang-Hwa refers to his creative activity as “work,” revealing a reluctance to attach any special meaning to the act of creation. His attitude toward his work and the way he lives his life is characterized by a desire to subtract rather than add or fill. He discovers surfaces in surfaces without imbuing them with specific narratives or hidden meanings to be read into. Through the countless repetitions of revealing and filling, he illuminates the boundless surface within the surface. The process of the work and the actions performed throughout that process are key to the final outcome. The myriad of chromatic nuances melted into a single color and the subtle movements in the grain that trigger a sensation of visual tactility are experienced as a whole.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오디오 가이드

운영	- 휴대폰에서 QR 코드로 접근 - 전시장 입구에 QR 코드 설치 - 개인 이어폰 사용 혹은 이어폰 대여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파일	1. 전시 소개 2. 1955 - 1964 3. 회색 모노크롬 회화 4. 순수한 사랑	1. 전시 소개 2. 작가 소개 3. 정상화의 작업 과정 4. 정상화의 작업 세계
조회수	한국어: 5720 회 영어: 1428 회	한국어: 2098 회 영어: 491 회

솔움미술관

+

← Back to li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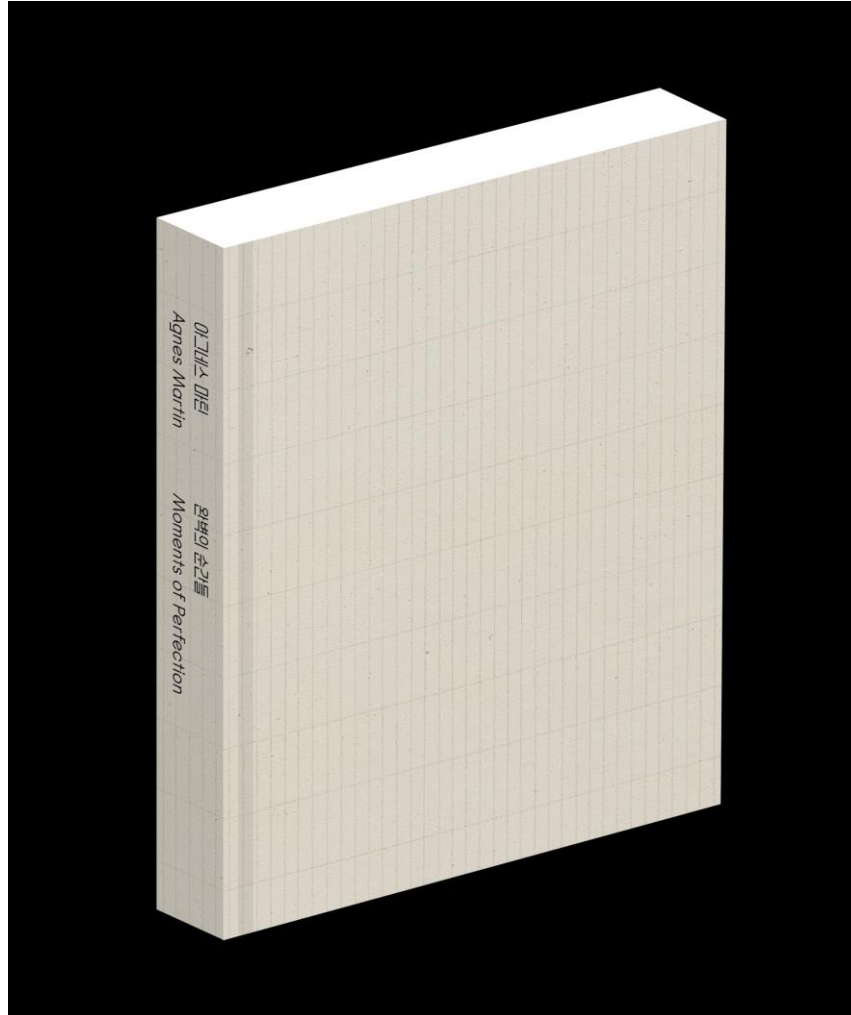
01:31

1. 전시 소개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은 한국에서 아방가르드한 실험미술과 단색화가 전개되던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순수 추상을 추구했던 아그네스 마틴의 작업 세계를 조명하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미술관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마틴의 작업을 동양 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한편, 그녀의 실험적이고 명상적인 작업을 동시대 아시아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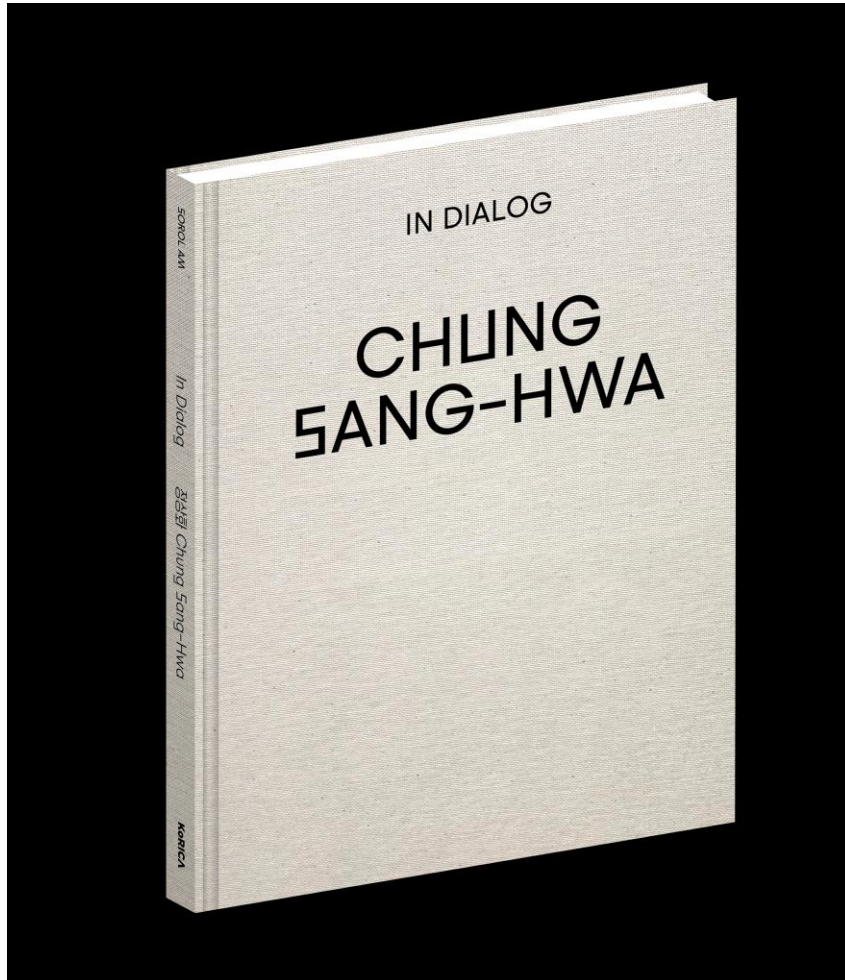
도록



인사말	7
아그네스 마틴: 들어가며 — 프란시스 모리스	10
작품 및 전시 전경	19
변늬 없는 마음 — 아그네스 마틴	179
소거된 몸의 현전 — 김수자	200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 프란시스 모리스	208
즉각적 깨달음과 점진적 수련의 추상 — 권영진	242
아그네스 마틴의 생애 — 한주희	271
전시 작품 목록	286

II. 2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도록



목차

4	인사말
6	기획의 글
8	에세이 추상과 무한한 평면 — 김석모 철학박사
23	작품 및 전시
79	에세이 완벽을 펼치다: 정상화와 아그네스 마틴의 대화 — 프란시스 모리스
100	연보

II. 3 전시 관람자 수치

| 전시명: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In Dialog 기획전

| 기간: 2024.2.14 ~ 4.14

총 관람자 수: 27,602명

*티켓 구매자(유료 관람권 및 초대권) 기준

대상별 티켓 판매 수	
성인	17,244
강릉시민	3,395
어린이	1,022
청소년	439
65세 이상	1,275
군인	85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333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89
예술인패스 소지자	324
제휴사 할인	179
문화가있는날	1,959
초대권	1258

II. 3 전시 관람자 수치

| 전시명: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 기간: 2024.5.4 ~ 8.25

총 관람자 수: 32,580명

*실 방문자 수(티켓 구매자 및 전시 관람자) 기준

대상별 티켓 판매 수	
성인	20,637
강릉시민	2,195
어린이	1,195
청소년	693
65세 이상	1,727
군인	81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370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70
예술인패스 소지자	532
제휴사 할인	1,218
문화가있는날	1,605
초대권	1,968
기타 (행사, 기자, 손님 등)	289

II. 3 전시 관람자 수치

※ 서울미술관 전체 관람자 수

(기간: 2024.5.4 ~ 8.25)

총 관람자 수: 60,182명

*실 방문자 수(티켓 구매자 및 전시 관람자) 기준

대상별 티켓 판매 수	
성인	37,881
강릉시민	5,590
어린이	2,217
청소년	1,132
65세 이상	3,002
군인	166
장애인 및 동행보호자	703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159
예술인패스 소지자	856
제휴사 할인	1,397
문화가있는날	3,564
초대권	3,226
기타 (행사, 기자, 손님 등)	289

III. 공식 행사

III.1 개관식(2/13)

III.2 개관 기자간담회(2/13)

III.3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개막식(5/3)

III.4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기자간담회(5/3)

V.1 개관식(2/13)

1. 개요

행사명	서울미술관 개관식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16:00 — 18:00
장소	서울미술관
목적	미술관 개관을 기념하고 지역 사회 및 문화계에 서울미술관을 소개
주최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참석자	80여 명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 강릉시 주요 관계자, 서울미술관 관계자,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초대손님 외)
주요 VIP	H.E. Emilia Gatto (주한이탈리아대사), 김홍규 (강릉시장), 강릉시의회, Michela Linda Magr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연덕호 (Meier Partners 대표), 박명자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대표), 경갑수 (교동파트홀딩스 대표이사) 등

V.1 개관식(2/13)

2. 주요 내용

프로그램

- 개회사 (김석모 관장)
-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소개 (구지원 매니저)
- 축사 (김홍규 강릉시장, 배용주 강릉시의회 부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축전 대독, Emilia Gatto 주한이탈리아대사, Michela Linda Magri 주한이탈리아문화원장, Frances Morris 前 테이트모던 미술관장)
- 미술관 건축 소개 (연덕호 Meier Partners 대표)
- 전시 소개 (한주희 큐레이터)
- 루치오 폰타나 재단 메시지 (실비아 아르데마니 루치오 폰타나 재단 대표)
- 개관전 작품 안내 (루치오 폰타나 재단 Scientific Advisor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
- 미술관 투어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 Meier Partners)
- 케이터링 (업체: 두에시스)
- 굿즈 증정 (솔올미술관 굿즈)

성과

- 주요 VIP 및 문화예술 관계자, 강릉시 주요 관계자의 미술관의 건축 및 전시 기획에 대한 호평
- 지역 사회 및 문화계 인사들의 관심을 끌며 성공적으로 오픈

V.2 개관 기자간담회(2/13)

1. 개요

행사명	솔올미술관 개관 기자간담회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11:30 — 13:30
장소	솔올미술관
목적	미술관 개관을 기념하며 미술관의 비전, 전시 및 운영 계획을 안내하여 언론 홍보 극대화
주최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참석자	72명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기자 및 지역 언론 기자)
주요 참여 언론 (가나다 순)	▪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구일보, 동아일보, 서울문화투데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한겨레, 헤럴드경제 외 ▪ 방송국: MBC 강원영동, CB5 강원영동, 연합뉴스 외 ▪ 온라인: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 미술관가는남자, 아트드링크, 컬처램프 외 ▪ 매거진: 건축문화, 까사리빙, 더블유, 럭셔리, 브리크, 스타일조선, 얼루어, 하퍼스 바자 외 ▪ 아트지: 서울아트가이드, 아트나우, 아트인컬처 외

V.2 개관 기자간담회(2/13)

2. 주요 내용

프로그램

- 개회사 (김석모 관장)
-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소개 (구지원 매니저)
- 미술관 건축 소개 (연덕호 Meier Partners 대표)
- 전시 소개 (한주희 큐레이터)
- 루치오 폰타나 재단 메시지 (실비아 아르데마니 루치오 폰타나 재단 대표)
- 개관전 작품 안내 (루치오 폰타나 재단 Scientific Advisor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
- Press Q&A
- 미술관 투어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 Meier Partners)
- 케이터링 (업체: 두에시스)
- 프레스킷 및 굿즈 증정 (솔올미술관 굿즈)

성과

- 언론 보도 및 미디어 노출: 100여 개 이상의 기사 보도
- 주요 기자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노출 및 홍보
- 개관 및 전시 관련 주요 방송사 인터뷰 보도

V.3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개막식(5/3)

행사명	솔올미술관 개관식
일시	2024년 5월 3일(월) 16:00 — 18:00
장소	솔올미술관
목적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를 대외적으로 소개
주최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참석자	40여 명 (국내외 문화예술 관계자, 강릉시 주요 관계자, 솔올미술관 관계자 외)
주요 VIP	Frances Morris 게스트 큐레이터/前 테이트모던 미술관장, 김태호 교수, 강릉시의회, 강릉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 파마리서치문화재단 박필현 이사장, (주) 승산 김익중 본부장, 강릉원주대 조형예술·디자인학과 교수진 외
프로그램	▪ 개회사 (김석모 관장) ▪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소개 (조성아 매니저) ▪ 축사 (윤희주 강릉시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축전) ▪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전시 소개 (Frances Morris) ▪ 《In Dialog: 정상화》 전시 소개 (한주희 큐레이터) ▪ 전시 관람 ▪ 케이터링 (업체: 두에시스) ▪ 굿즈 증정 (루치오 폰타나, 광인식 전시 도록)

V.4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 기자간담회(5/3)

행사명	솔올미술관 개관 기자간담회
일시	2024년 5월 3일(금) 11:30 — 13:30
장소	솔올미술관
목적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시를 소개하여 언론 홍보 극대화
주최	재단법인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
참석자	40명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기자 및 지역 언론 기자)
주요 참여 언론 (가나다 순)	▪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코리아타임즈,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외 ▪ 방송국: MBC 강원영동, 연합뉴스 외 ▪ 온라인: 네이버 디자인 프레스, 미술관가는남자, 컬처램프 외 ▪ 매거진: 스타일H, 여성조선, 월간 인테리어, 행복이 가득한 집 외 ▪ 아트지: 월간미술, 서울아트가이드 외
프로그램	▪ 개회사 (김석모 관장) ▪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소개 (조성아 매니저) ▪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전시 소개 (Frances Morris) ▪ 《In Dialog: 정상화》 전시 소개 (한주희 큐레이터) ▪ Press Q&A ▪ 전시 관람 ▪ 케이터링 (업체: 두에시스) ▪ 프레스킷 및 굿즈 증정 (루치오 폰타나, 객인식 전시 도록)

IV.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IV.1 어린이 프로그램

III.2 강연 프로그램

III.3 전시 연계 프로그램

III.4 지역 연계 프로그램

IV.5 프로젝트 전시 《세븐가든즈》

III.6 한 여름밤의 미술관

III.7 기타

III.8 주요 성과

IV.1 어린이 프로그램 (루치오 폰타나)

일자	2024년 3월 9일(토) — 4월 14일(일) (3/9,10,16,17,23,24,30,31, 4/6,7,13,14 : 총 12일) ※ 토, 일요일 주말에 교육 진행
시간	11:00~12:30 (90분)
장소	솔올미술관 2층 세미나실
신청	- 신청: 네이버 사전 예약접수 - 홍보: 5N5 홍보(강릉 맘카페, 솔올미술관 홈페이지 및 5N5, 조이뮤지엄 인스타그램)
기획	조이뮤지엄 (어린이 전문 미술관 교육기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참여 인원	180명 (1회 15명 기준)
수강료	5,000원 (전시관람료)
목적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수준 높은 미술관 프로그램 제공
교육 내용	미술관 건축 투어, 전시 감상, 워크시트 활동, 아트클래스 (솔올미술관 만들기)
주요 성과	- 지역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으로 전 수업이 오픈 하루 만에 신청 마감 - 전시 관람료 외 별도 수업료를 받지 않아 지역 내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 -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

IV.1 어린이 프로그램 (아그네스 마틴)

일자	2024년 6월 21일(금) — 8월 23일(금) (6/21, 6/28, 7/5, 7/12, 7/19, 7/26, 8/2, 8/9, 8/16, 8/23) - 총 10일, 12회 진행 (6/21, 28일 2회 진행) ※ 어린이들의 안전한 전시 관람을 위해 기존 주말에 진행하던 교육을 평일로 변경하여 매주 금요일에 진행
시간	- 6월: 3:00 ~ 4:30 (90분), 4:00 ~ 5:30 (90분), 2회 진행 - 7~8월: 4:00 ~ 5:30 (90분), 1회 진행
장소	솔올미술관 1층 카페 및 사무실 (세미나실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하여 장소 변경)
신청	- 신청: 네이버 사전 예약접수 - 홍보: 5N5 홍보(강릉 맘카페, 솔올미술관 홈페이지 및 5N5, 조이뮤지엄 인스타그램)
기획	조이뮤지엄 (어린이 전문 미술관 교육기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참여 인원	120명 (1회 10명 기준, 수업 집중도 향상 및 협소한 교육 공간으로 인해 기존 15명에서 10명으로 인원 축소)
수강료	5,000원 (전시관람료)
목적	전문 교육기관과의 협업으로 지역 어린이를 위한 수준 높은 미술관 프로그램 제공
교육 내용	미술관 건축 투어, 어린이 명상, 전시감상, 워크시트 활동, 아트클래스(나만의 추상작품 만들기)
주요 성과	- 기존 교육에 대한 입소문 및 높은 만족도로 전 수업이 오픈 한 시간 만에 신청 마감, 학부모들의 추가 수업 요청으로 2회 클래스 추가 - 전시 관람료 외 별도 수업료를 받지 않아 지역 내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며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

IV.1 어린이 프로그램

- 학부모 피드백

1. 전반적 만족도: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특히 아이들이 수업을 즐기고, 재미있게 참여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음. (예시: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 했어요.",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교육 내용과 강사의 역량: 강사의 수업 진행 방식과 교육 내용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 수업이 쉽고 재미있었으며 강사가 아이들의 흥미를 잘 이끌어냈다는 의견. (예시: "열정이 넘치는 수업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적극적인 참여 유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긍정적. 부모와 함께 활동 내용 공유. (예시: "선생님의 구체적인 피드백과 아이의 활동 사진, 아이에게 소감을 들으며 이야기 나누고 많이 웃었어요.")
4. 높은 재참여 의사: 많은 학부모들이 다음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길 바라는 의견 다수. (예시: "다음번에도 꼭 참여할게요.",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5. 결론: 전체적으로 학부모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수준 높은 교육 내용과 강사의 역량,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음. 또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주제의 다양성 확대와 더 많은 참여 기회 제공을 기대.

방문일 2024. 4. 14(일) 오전 11:00 예약
예약자 신남숙 원로 3, 취소 13 >
작성일 2024. 4. 16(화)



루치오 폰타나 : 공간, 기다림
현대미술을 온전히 감각으로만 감상하기엔 놓칠수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작가선택으로 더 의미있던 전시였어요 아이가 재미있어서 다음에도 신청할래요. 도슨트 선생님도 좋았답니다

방문일 2024. 3. 9(토) 오전 11:00 예약
예약자 김부영 원로 1 >
작성일 2024. 3. 11(월)



루치오 폰타나 : 공간, 기다림
미술관에서의 키즈 워크샵에 참석했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방문일 2024. 4. 13(토) 오전 11:00 예약
예약자 박수영 원로 3, 취소 1 >
작성일 2024. 4. 14(일)



루치오 폰타나 : 공간, 기다림
아이들이 재미있었네요. 알뜰로 미술관 전시 관람이 어렵지 않다는걸 느끼며 좋았어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방문일 2024. 4. 6(토) 오전 11:00 예약
예약자 김선희 원로 1 >
작성일 2024. 4. 10(화)



루치오 폰타나 : 공간, 기다림
상지민 원로 및 전시도 함께 둘러보고 체험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Keep going on!
네~일회성 수업이라 너무아쉬웠습니다.연감이 이어지는 클래스가 있으면 참 좋을것 같아요~~~감사했습니다.앞으로도 이런 클래스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도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볼까요

루
아이가 너무 재미있어했어요^^ 다음번에 또 예약하여 찾아뵙겠습니다^^

김경희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활동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고 나누고 많이 웃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다른 주제로 즐거운 수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하루 보내세요~~

고운
아이도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 감사합니다

hr
안녕하세요~
지난 4월 7일에 강릉 루치오 폰타나 전시 체험에 참가한 최을서 열마입니다. 카톡 채널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체험 사진도 보내주신다하여 이렇게 문자 남겨드립니다.
좋은 체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hr
네~아이가 좋아했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조은혜
네!!
아이들에게 좋은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희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IV.1 어린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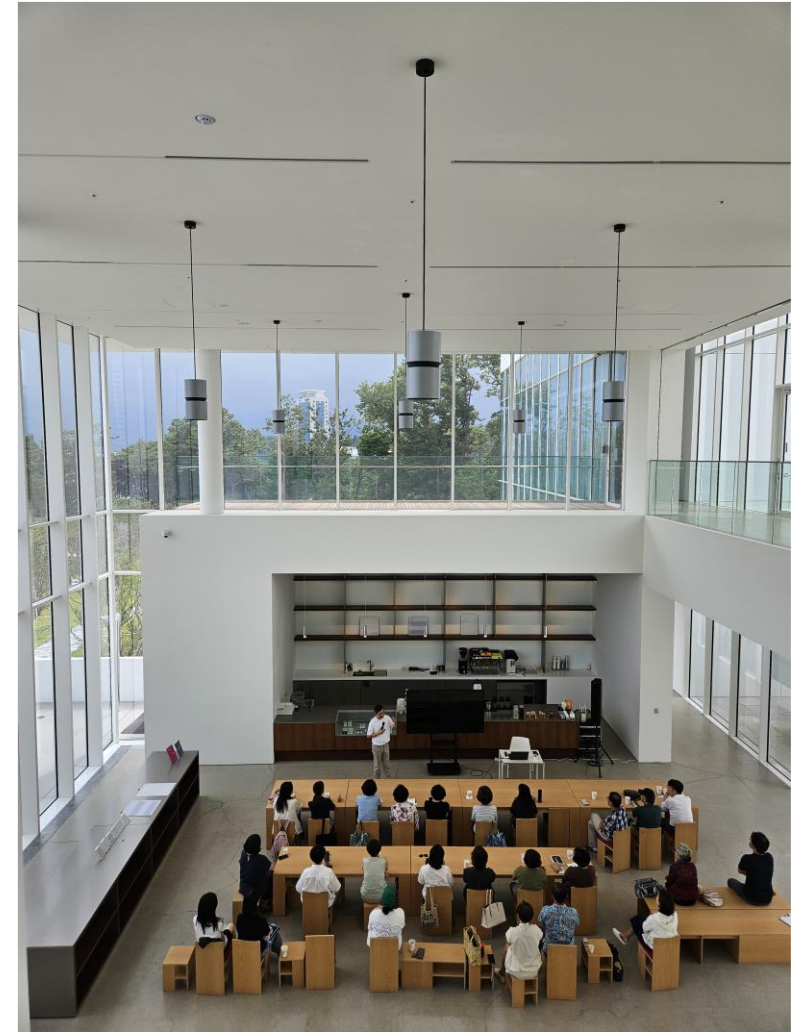
IV.2 강연 프로그램 (전시 연계 강연)

프로그램명	솔올 렉처 (Sorol Lecture)
일시	2024년 7월 8일(월) 14:00 — 16:30 (150분)
장소	솔올미술관 1층 카페
신청	솔올미술관 홈페이지 및 5N5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참여 인원	30명 모집, 32명 출석 (참석자 지인 동행)
프로그램	14:00 — 14:50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김석모 솔올미술관장) 15:00 — 15:50 In Dialog: 정상화 (한주희 큐레이터) 15:50 — 16:30 솔올미술관 전시 관람
수강료	무료
주요 성과	- 미술관 휴관일에 미술관을 오픈하여 전시 연계 강연을 듣고 전시를 관람 -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이 높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높은 참여도와 호응을 얻음

IV.2 강연 프로그램 (미술사 강연)

프로그램명	솔올 아카데미 (Sorol Academy)
일시	2024년 8월 5일(월), 12일(월), 19일(월) 14:00-15:30 (90분)
장소	솔올미술관 1층 카페
강사	김석모 솔올미술관장
주제	▪ 1주차: 미술관과 예술의 시간 ▪ 2주차: 미술의 언어 ▪ 3주차: 추상과 추상 이후의 추상 미술
신청	솔올미술관 홈페이지 및 5N5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참여 인원	1주차: 25명, 2주차: 26명, 3주차: 20명
수강료	무료
주요 성과	미술사에 대한 수준 높은 심층 강연을 지역 사회를 위해 3주에 걸쳐 무료로 진행하며 문화예술과 미술사에 대해 관심이 높은 지역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냄

IV.2 강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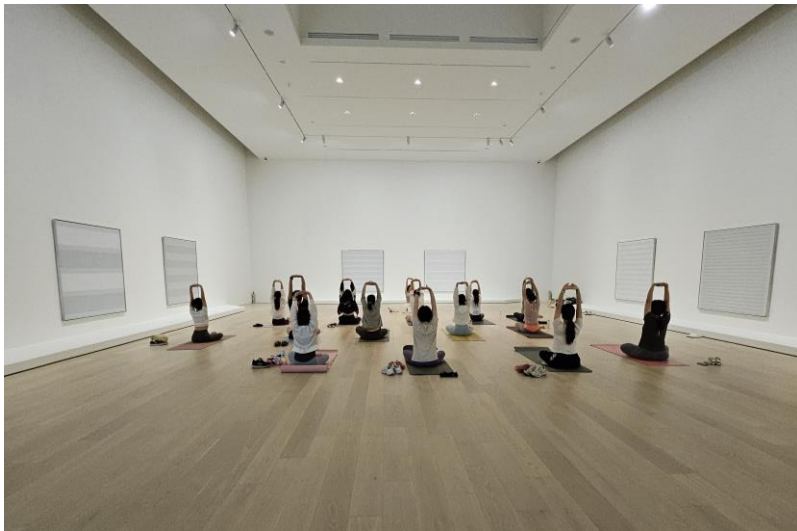
IV.3 전시 연계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명상이 있는 서울의 아침
일시	2024년 6월 22일(토) — 7월 6일(토) 8:30 — 11:00 (150분)
장소	서울미술관 예술의마당
신청	서울미술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참여 인원	총 45명 (회당 정원 15명)
주제 및 강사	Week 1) 6월 22일(토) 바디스캔 명상 / 심연재 (강릉 어바웃요가스튜디오 원장) Week 2) 6월 29일(토) 싱잉볼 명상 / 박정은 (요가하우스 싱잉볼 명상 원장) Week 3) 7월 6일(토) 호흡·감정 명상&요가 / 유제량 (썸머 포레스트 원장)
프로그램	08:30 - 09:30 명상 프로그램 09:30 - 10:00 TEA & COFFEE 10:00 - 11:00 전시 관람
수강료	10,000원
주요 성과	명상을 통해 얻은 '영감'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아그네스 마틴의 예술 세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3주 간의 명상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들은 서울미술관을 둘러싼 자연과 함께 명상을 한 후, 마틴의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짐

IV.3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요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호흡이 있는 숲속의 아침
일시	2024년 7월 20일(토) — 8월 10일(토) 8:30 — 11:00 (150분)
장소	서울미술관 전시실 2 앞 복도 등
신청	서울미술관 홈페이지 및 5N5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참여 인원	총 60명 (회당 정원 15명)
주제 및 강사	Week 1) 7월 20일(토) 크리스탈 싱잉볼 힐링 요가 / 남고은 (요가 강사) Week 2) 7월 27일(토) 아로마 요가 / 박예원 (요가 강사) Week 3) 8월 3일(토) 인 요가 / 박근영 (공립학교 요가 강사) Week 4) 8월 10일(토) 빈야사 요가 / 심연재 (강릉 어바웃요가스튜디오 원장)
프로그램	08:30 - 09:30 명상 프로그램 09:30 - 10:00 TEA & COFFEE 10:00 - 11:00 전시 관람
수강료	10,000원
주요 성과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추가 클래스에 대한 요청으로 인해 요가 프로그램 진행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이끌어냄

IV.3 전시연계 프로그램 (명상. 요가)



IV.3 전시연계 프로그램 (영상 상영)

- 아그네스 마틴 영상 상영

SOROL AM

Agnes Martin

Film Screening Program

아그네스 마틴 영상 상영 프로그램

SOROL X BAZINGA

날짜: 8월 2일 - 8월 25일 매 주 금, 토, 일
시간: 10시 - 19시 상시 상영
장소: 버징가(강원 강릉시 임영로157번길 8 1층)

상영작

가브리엘(1976)

비포 더 그리드(2016)

SOROL X RASLIN LIBRARY

날짜: 8월 4일 일요일
장소: 나선도서관(서울 중구 마른내로4길 2 4층)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전 신청 필수

11:00 - 11:56

비포 더 그리드(2016)

15:00 - 15:57

아그네스 마틴: 세상을 등지고(2003)

19:00 - 20:18

가브리엘(1976)

IV.3 전시연계 프로그램 (영상 상영)

- 아그네스 마틴 영상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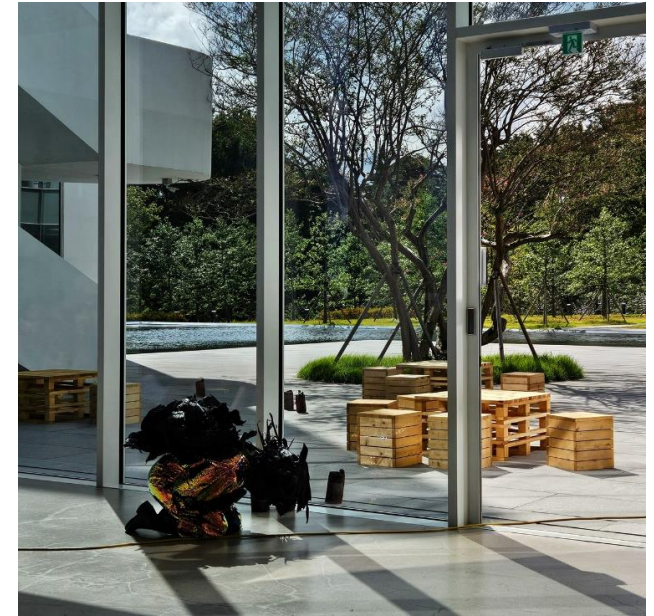


IV.4 지역 연계 프로그램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프로그램명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찾아가는 가족음악회'
일시	2024년 7월 29일(월) 19:00
장소	솔올미술관 1층
신청	솔올미술관 및 평창대관령음악제 홈페이지 및 5N5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참여 인원	총 72명 (솔올미술관 초대 16명, 음악제 초대 38명, 현장등록 18명)
프로그램	5:30 ~ 7:00 전시 관람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7:00 ~ 8:00 음악회 (폴 레이 Paul Lay 재즈 피아노 연주)
주요 성과	미술과 음악이 만나는 자리로 재즈 피아노 공연과 함께 솔올미술관의 전시 및 야경을 감상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냄

IV.4 지역 연계 프로그램 (X 대추무파인아트)



프로그램명	솔올 X 대추무 - 송아리 작가 퍼포먼스 <나는 너의 숙주>
일시	2024년 8월 17일(토) 15:00
장소	솔올미술관 로비, 예술마당
홍보	솔올미술관 및 대추무파인아트 SNS를 통해 사전 홍보
주요 성과	강릉 대추무파인아트에서 열리는 송아리 작가 개인전 《어답트-어-몬스트룸》의 변이 신체에 관한 '퍼포먼스적 조각' <나는 나의 숙주>를 솔올미술관 로비에서 공개하며 지역 문화예술 공간과의 연계

IV.4 지역 연계 프로그램 (솔올 썸머 비어)

행사명	솔올 썸머 비어 (Sorol Summer Beer)
프로그램	8월 17일 (토) 11:00 — 18:00 : 화이트크로우랩하우스 (생맥주, 병맥주 판매) 8월 24일 (토) 11:00 — 18:00 : 버드나무 브루어리 (생맥주, 병맥주, 핫도그 판매)
장소	솔올미술관 예술의마당
홍보	솔올미술관 및 브루어리 SNS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의의	- 강원도 대표 수제맥주 전문점인 화이트크로우브루잉, 버드나무 브루어리와 함께 무더운 여름 미술관에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시간 마련 - 예술과 지역 문화산업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IV.5 프로젝트 전시 《세븐가든즈》



일시	2024년 8월 14일(수) — 8월 25일(일)
장소	솔올미술관 1층
개요	솔올미술관과 홍익대학교 건축디자인전공(지도교수 오웅성) 학생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지도교수 김대경) 학생들이 협력하여 준비한 프로젝트로, 솔올미술관 주변의 외부 공간을 일곱 개의 정원으로 나누어 각 정원이 담고 있는 고유한 주제를 통해 건축과 자연, 예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환경 제안
의의	대학교와 공공미술관이 협력하여 교육과 실무, 예술적 성과가 어우러진 사례로 평가받으며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경험 제공

IV.6 한 여름밤의 미술관

프로그램명	한 여름밤의 미술관: SOROL SUMMER NIGHT'
일시	2024년 8월 10일(토) 19:00 — 21:00 (120분)
장소	솔올미술관 1층
참여	총 130여 명
홍보	솔올미술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홍보,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오픈 행사로 진행
프로그램	- 성수동 그라운드 와인과의 제휴로 독일 와인 제공 & 핑거푸드 - 미술관 건축 야간 관람 -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전시 관람 (19:30 — 20:30)
참가비	10,000원
의의	- 여름밤 미술관에서 와인과 음식을 즐기며 야간 전시를 관람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총 130명이 참여 - 미술관의 아름다운 조명과 건축을 감상하며 특별한 경험을 제공 - 미술과 함께하는 여름밤의 독특한 분위기로 지역민과 예술 애호가들의 큰 호응을 받음

IV.6 한 여름밤의 미술관



IV.7 기타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총 3천 6백 여 명의 시민들이 미술관 방문
- 버스킹 공연: 2024년 8월 24일(토), 25일(일) 서울미술관 예술의마당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



IV.8 주요 성과

- 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
- 기존 미술관 프로그램의 틀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협업 및 전문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유연성 확대
- 시민들에게 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과 지역 문화산업의 결합으로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음악회,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결합된 프로그램 제공
- 지역민들에게 미술관을 개방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촉진
- 지역 내 다 문화예술 기관(버징가, 대추무파인아트 등)과 협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릉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V. 정보

V.1 광고

V.2 보도자료

V.3 보도기사

V.4 SNS

V1. 광고 (미술잡지)

1) 월간미술(2월호), 서울아트가이드(2월호)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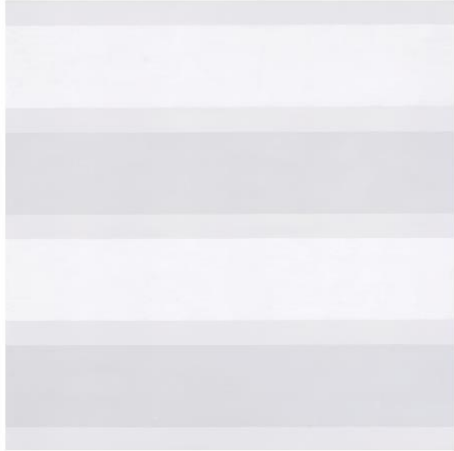
2024.2.14.
강릉 솔로미술관 개관
Sorol Art Museum
Inauguration

SOROL A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도리 45 sorolartmuseum.org T. 033-641-3376 E. info@sorolartmuseum.org

2) 월간미술(4월호), 서울아트가이드(6월호)

아그네스 마틴: 완벽한 순간들
Agnes Martin: Moments of Perfection



Agnes Martin, Untitled #9, 1991,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6 x 182.6 cm
© Estate of Agnes Marti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2024.5.4.—8.25.

솔로미술관 Sorol Art Museum
sorolartmuseum.org

SOROL AM

In Dialog: 정상화
Chung Sang-Hwa



Untitled #8-12, 1998,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 Chung Sang-Hwa, Image: Gallery Hyundai

2024.5.4.—8.25.

솔로미술관 Sorol Art Museum
sorolartmuseum.org

SOROL AM

V1. 광고 (강릉시 매체 2024.02)

1) 시정 소식지(2월호)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



2024.2.14.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Sorol Art Museum
Inauguration

SOROL AM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원대로 45 sorolartmuseum.org T. 033-641-3376 E. info@sorolartmuseum.org

2) 강릉시청 앞 LED 전광판

2024.2.14 솔올미술관 개관 Sorol Art Museum Inauguration

**SOROL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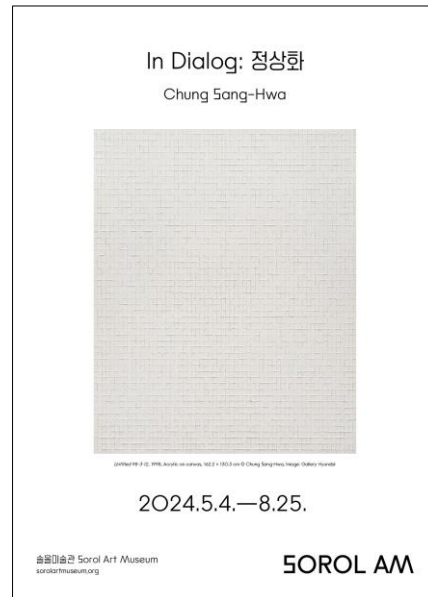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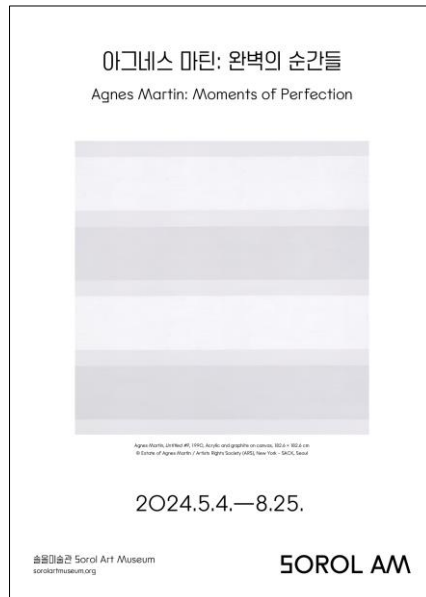
3) 강릉시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2024.2.14
솔올미술관 개관
Sorol Art Museum Inaug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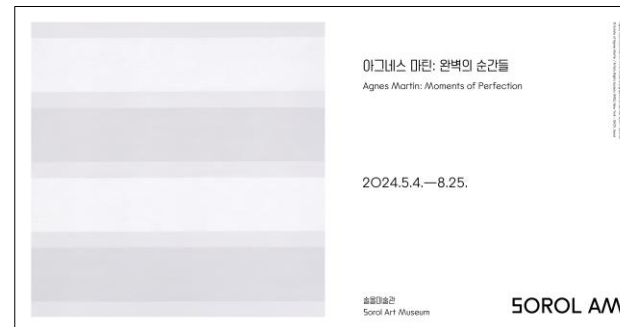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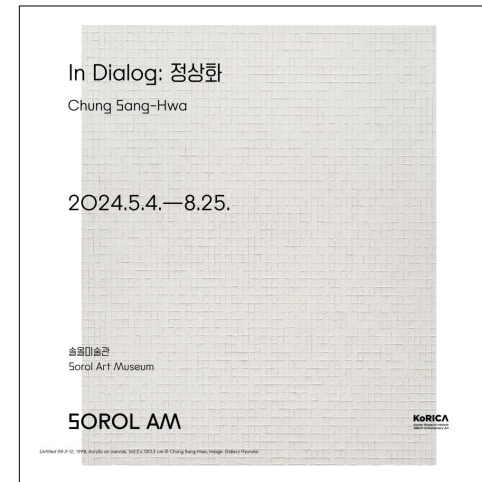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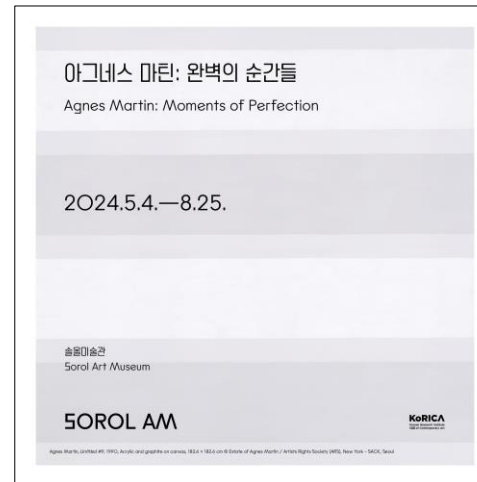


V1. 광고 (강릉시 매체 2024.05)

1) 시정 소식지(2월호)



3) 강릉시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2) 강릉시청 앞 LED 전광판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2024.5.4.—8.25.	솔로미술관 Sorol Art Museum
---------------------	-------------------	-----------------	---------------------------

V2. 보도자료

※ 보도자료 다운로드: [바로가기](#)

No.	제목	보도일자	배포 대상
O1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2024년 1월 18일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기자 및 지역 언론 기자 300여 명
O2	솔올미술관, 개관전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개최	2024년 2월 19일	
O3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개최 예정	2024년 4월 24일	
O4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개최	2024년 5월 3일	
O5	솔올미술관, 협업 프로젝트 전시 《세븐가든즈 프로젝트》 개최	2024년 8월 14일	
O6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전시 종료	2024년 8월 20일	

V3. 주요 보도자료

기사 제목	매체	기자명	보도일자
“그가 왔다고? 아는 척 마라” 강릉용인 미술관 뒤집은 군인	더중앙플러스	권근영	2024-04-05
서울을 벗어나 만끽하는 산책이 갖든 예술여행	우먼센스	이혜민	2024-02-27
시작부터 꼬여가는 '강릉 랜드마크' 미술관	한국경제	최지희	2024-02-26
솔올미술관 개관전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C3KOREA		2024-02-26
[현장스케치] 순백색의 솔올미술관, 루치오 폰타나展으로 화려한 개관	서울문화투데이	김연신	2024-02-26
'백색 건축·세계와 연결' 솔올미술관, 출발은 화려했지만...	경향일보	이영경	2024-02-25
관인식의 고향, 달성 낙동강변에 그의 미술관이 있다면....	대구일보	김진혁	2024-02-25
伊현대미술 아이콘, 그가 창조한 세계가 강릉에 도착했다	매일경제	김슬기	2024-02-23
솔올미술관, 하드웨어는 멋진데 소프트웨어의 미래는?[영감 한 스푼]	동아일보	김민	2024-02-23
[심상복의 뉴웨이브 in 강릉] 11. 해변의 송림에서 싹트는 퍼블릭 아트	강원도민일보	심상복	2024-02-23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 '백색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솔올미술관	부산일보	이상훈	2024-02-22
'칼자국 작가' 루치오 폰타나가 만든 빛의 조각	매일경제	김슬기	2024-02-22
강릉의 새로운 랜드마크, 솔올미술관 개관	VOGUE	이정미	2024-02-22
노출 콘크리트+알루미늄+유리... “미술관 그 자체가 작품”	동아일보	김민	2024-02-21
강릉시 관심 안보이는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국민일보	손영욱	2024-02-21
강릉 솔올미술관 ‘루치오 폰타나’ 전	강원일보	최영재	2024-02-21
정갈한 백색의 '강릉 솔올미술관',건축과 개관전은 짝꿍한데 앞날은?	뉴스핌	이영란	2024-02-20
"강릉시정만 암전" vs "얼마나 더 소통하냐"...'솔올미술관' 시작부터 삐끗?	뉴스1	김일창	2024-02-20
"미술관을 강릉시 녹지과가 담당한다고?" 솔올미술관 개관 일주일도 안됐는데 ‘흔들’	해럴드경제	이정아	2024-02-20
거장이 '짓고' 거장이 '채우다'...강릉 新랜드마크 '솔올미술관' 개관	뉴스1	김일창	2024-02-20
베일 벗은 강릉 솔올미술관...루치오 폰타나展으로 개관	연합뉴스TV	오주현	2024-02-20
강릉 하면 커피·서광·술술... 그리고 '미술관'도 있습니다	문화일보	유승목	2024-02-20
건축 거장이 숨결 넣은 건물서 미술 거장이 빛난다	조선일보	허윤희	2024-02-20
한국·세계 미술 잇는 공간혁명	강원도민일보	강주영	2024-02-20
[포도뉴스]강릉 '솔올미술관' 개관식	강원일보	권대영	2024-02-20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과제 산적	KB5뉴스	노지영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과제 산적	KB5뉴스	노지영	2024-02-19
강릉 새 랜드마크' 솔올미술관...화려한 개관, 걱정되는 미래	한국Ibo	이혜미	2024-02-19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의 연결"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노컷뉴스	전영래	2024-02-19
거장 앞세워 문연 솔올미술관, 하반기엔 공실 우려	서울경제	서지혜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강원일보	최영재, 권대영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연합뉴스	유형재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연합뉴스	유형재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연합뉴스	유형재	2024-02-19
제9회 밀라노 트리엔날레를 위한 네온 구조' 재현작	연합뉴스	황희경	2024-02-19
강릉의 새 랜드마크' 솔올미술관..."한국미술과 세계미술 연결"	연합뉴스	황희경	2024-02-19
강릉의 새 랜드마크' 솔올미술관	연합뉴스	황희경	2024-02-19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현대미술 거장 '루치오 폰타나' 전시	MBC강원영동	이준호	2024-02-19
강릉 공공미술관 '솔올미술관' 개관	G1방송	송혜림	2024-02-19

V3. 주요 보도자료

기사 제목	매체	기자명	보도일자
아시아 최초 '네온사인 전시' 인기...공공미술관 개관	MBC강원영동	이준호	2024-02-19
'민간 특례사업' 강릉 솔올미술관 14일 개관...‘미학적 담론의 장’	강원일보	류호준	2024-02-14
강릉 솔올미술관 오늘 정식개관 ‘통행 예고’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2024-02-14
'민간 특례사업' 강릉 솔올미술관 14일 개관...‘미학적 담론의 장’	강원일보	류호준	2024-02-14
강릉 솔올미술관 오늘 정식개관 ‘통행 예고’	강원도민일보	이연제	2024-02-14
1위 아르떼뮤지엄 강릉 2위 뮤지엄산 3위 하슬라아트월드, 2024년 2월 1주차 강원 문화공간 트렌드시수 순위 결과	스타데일리뉴스	서태양	2024-02-12
아르떼뮤지엄강릉, 2월 1주차 강원 문화공간 트렌드시수 순위 1위...뮤지엄산하슬라아트월드 뒤이어	CWN	김해남	2024-02-11
1위 아르떼뮤지엄강릉 2위 뮤지엄산 3위 하슬라아트월드, 강원 문화공간 트렌드시수 2024년 2월 1주차 순위	라온신문	최승리	2024-02-09
강릉 솔올미술관 14일 문 연다...개관전은 루치오 폰타나전	매일일보	이연정	2024-02-05
강릉 솔올미술관 관람 예약 5일에서 7일로 연기	강원일보	류호준	2024-02-05
개관 앞둔 강릉 솔올미술관 5일부터 관람 예약	강원일보	류호준	2024-02-04
[심상복의 뉴웨이브 in 강릉] 10. 거장 마이어가 끌어올리는 건축 미학	강원도민일보	심상복	2024-01-26
리처드 마이어 설계 '솔올미술관', 2월 개관해	C3KOREA	정영진	2024-01-26
강릉시립미술관 운영 개선 3년차...성과는 언제?	KB5 뉴스	김보람	2024-01-25
강릉 새 공공미술관 '솔올미술관' 2월 문 연다... 개관전은 '루치오 폰타나'	서울경제	서지혜	2024-01-24
솔올미술관 2월 14일 개관...개관전은 루치오 폰타나	Nocut News	문수경	2024-01-23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솔올미술관', 오는 2월 14일 강릉에 개관	브리크매거진	김태진	2024-01-23
2월 문 여는 강릉 솔올미술관...개관전은 캔버스 칼로 자른 '폰타나展'	해럴드경제	이정아	2024-01-22
강릉시,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솔올미술관 개관	트래블투데이	심성자	2024-01-22
강릉에 솔올미술관 문 연다	스포츠월드	정희원	2024-01-21
솔올미술관 2월 문연다...개관전은 캔버스 찢은 루치오 폰타나	뉴시스	박현주	2024-01-20
전시실 가득 자연광이	소년한국일보	정준양	2024-01-19
강릉시, '솔올' 공공미술관 2월 개관	신아일보	이종성	2024-01-18
강릉 '솔올미술관' 다음 달 14일 개관	MBC강원영동	이준호	2024-01-17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솔올미술관 개관	강원일보	정익기	2024-01-17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솔올미술관' 2월 개관	연합뉴스	유형재	2024-01-17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솔올미술관' 2월 개관	연합뉴스	유형재	2024-01-17
세계적인 건축가 설계, 강릉 솔올미술관 개관	아이즈매거진	허유림	2024-01-17
공간주의 미술의 기원을 만나다, 솔올미술관 개관전 《루치오 폰타나: 공간 기다림》	컬처캠프	함혜리	2024-02-19
뚫고 베어 공간을 들이다... '루치오 폰타나' 한국 상륙	스카이드일리	임유이	2024-03-09

V3. 주요 보도자료

기사 제목	매체	기자명	보도일자
이 달의 주목할 만한 전시	여성조선	임언영	2024-03-30
화려한 개관, 앞날이 걱정...강릉 새 랜드마크 솔올미술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898	중앙일보	이은주	2024-03-05
명품'으로 출발한 솔올미술관, 강릉 '문화력' 시험대에 올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2785	중앙일보	이은주	2024-03-04
[천견희의 산책길66] 솔올 미술관에서 만난 ‘루치오 폰타나: 공간·기다림’ · ‘IN DIALOG: 객인식’展	이모작뉴스	천견희	2024-03-22
거장 폰타나의 환상적인 공간을 거닐다	한겨레	노형석	2024-03-01
백색의 미술관	매종	원하영	2024-03-29
평면을 배어 만든 공간...이 미술관에선 관객도 작품이 된다 [영상]	한겨레	노형석,황인솔,박승연	2024-03-20
솔올미술관 개관전 '루치오 폰타나' [전종혁 칼럼⑤]	뉴스저널리움	전종혁	2024-03-03
솔올미술관, 강릉 예술 랜드마크 기대...세계미술과 '연결'	헬로tv뉴스	최성식	2024-02-28
강릉 솔올미술관 2주간 7천 명 가까이 다녀가	MBC강원영동	이준호	2024-02-28
강원 문화공간 트렌드지수 3월 4주차 순위, 1위 뮤지엄산...2위 솔올미술관 3위 하슬라아트월드	잡포스트	김지환	2024-04-01
[손영욱의 컬처 아이] 걱정되는 강릉 솔올미술관의 미래	국민일보	손영욱	2024-02-29
입대 후에도 '미술 사랑' BTS RM...리움호암미술관 등 방문	연합뉴스	황희경	2024-04-01
군 입대 후에도 변함없는 미술 사랑...BTS RM, 휴가 중 미술관 방문	이데일리	이윤정	2024-04-01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In Dialog: 정상화》 동시 개최	서울 문화 투데이	김연신	2024-04-24
추상미술 대가 '아그네스 마틴', 솔올미술관에서 만나다	mbc 강원영동	이준호	2024-05-03
#아그네스마틴 : 완벽의 순간들 #정상화 #김석모관장 #솔올미술관 2024.5.4 - 8.25	DJ Muse	DJ Muse	2024-05-03
[DJ KIM의 현장]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컬처램프	김달진	2024-05-05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In Dialog: 정상화》, 솔올미술관	서울아트가이드	김달진	
(미술계소식) #아그네스마틴 정상화전 24-0503 기자간담회 #김석모 #프란시스모리스 #조성아 #한주희	DJ Muse	DJ Muse	2024-05-04
새로 생긴 강릉 솔올미술관은 '넌사벽' 아그네스 마틴 작품을 어떻게 빌렸을까	한국일보 문화	이혜미	2024-05-08
강릉 솔올미술관 인기...‘아그네스 마틴’전도 흥행 예고	ART1	박현주	2024-05-05
선·격자로 이뤄진 ‘완벽한 아름다움’...세계 거장 데려온 솔올미술관 ‘마지막 전시’ 될까	경향신문	이영경	2024-05-06
강릉 솔올미술관 인기...‘아그네스 마틴’전도 흥행 예고	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2024-05-06
아름다움은 마음 속에... 캔버스로 끌어낸 순수한 감정	동아 일보	김민	2024-05-06
격자 그림과 수도승... 강원도에 온 두 '명상 거장'	조선일보	허윤희	2024-05-21
사색의 세계로 초대,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展 8월 25일까지	브라크	김태진	2024-05-10
강릉 솔올미술관에서 비로소 마주한, 아그네스 마틴	디자인 플러스	김혜원	2024-05-10
아그네스 마틴과 정상화, 단색조 추상화 두 거장이 만났다	한국경제	안시욱	2024-0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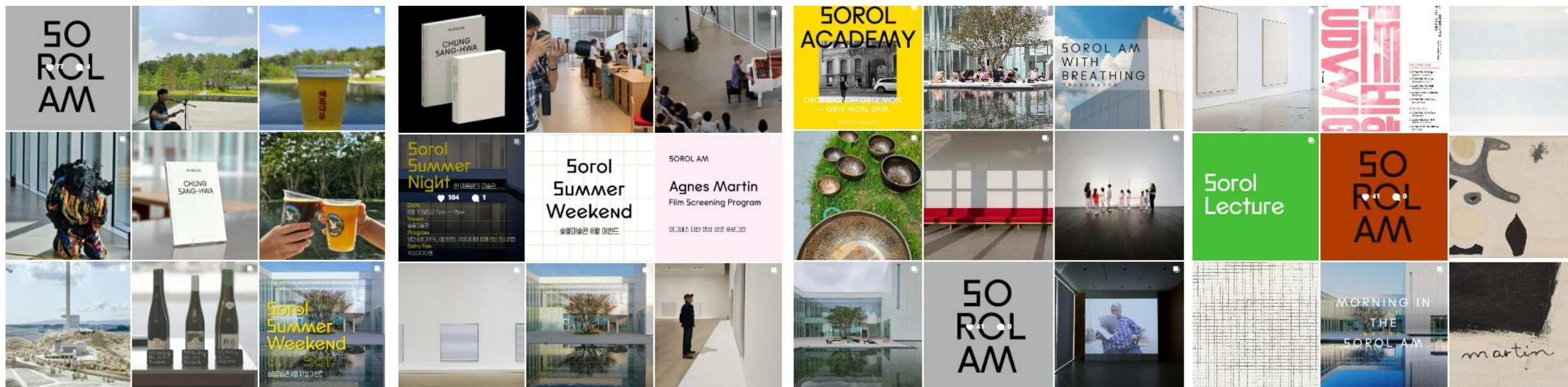
V3. 주요 보도자료

기사 제목	매체	기자명	보도일자
다가설수록 선명해지는 '외로움과 무관심의 그림자'	네이트 뉴스	안시욱	2024-05-20
강릉을 들썩인 이곳, 이번에는 '아그네스 마틴'	미술관 가는 남자	미술관 가는 남자	2024-05-28
수백억대 작품만 50여점... 강릉 솔올관, 아그네스 마틴展 연일 화제	미술관 가는 남자	미술관 가는 남자	2024-05-30
추상화 거장이 말하는 '완벽한 순수'...격하게 외로워져야 알게 되는 것 [요즘 전시]	헤럴드 경제		2024-05-08
명상을 통한 영감, 무한 반복과 변주...'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展	시티타임스		2024-05-06
아그네스 마틴&정상화' 두 작가의 전시 만남, 강릉 솔올미술관 '관계&동조성' 고찰의 시간 가지다	아미뉴스	이름수	2024-05-12
본질에 다가서기-'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전종혁칼럼⑰]	뉴스 저널리즘	전종혁 칼럼니스트	2024-05-27
자발적 고독의 필요[내가 만난 명문장/안동선]	동아일보	안동선 기자	2024-06-09
솔올미술관 '아그네스 마틴:완벽의 순간들'	강원 일보	정익기기자	2024-04-29
이 달의 주목할 만한 전시	여성조선	임연영 기자	2024-05-25
강릉 솔올미술관 인기...'아그네스 마틴'전도 흥행 예고	k-artprice	공감연론 뉴시스	2024-05-06
명상을 통한 영감, 무한 반복과 변주...'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2024-05-10
고요한 평면의 미학, 은둔과 명상으로 펼쳐다	강원도민일보	김여진기자	2024-05-07
아름다움은 마음 속에... 캔버스로 끌어낸 순수한 감정	비즈N bizn	김민 기자	2024-05-06
추상화 거장이 말하는 '완벽한 순수'...격하게 외로워져야 알게 되는 것 [요즘 전시]	헤럴드 경제		2024-05-08
완전한 추상 추구했던 애그니스 마틴, 한국서 첫 개인전	연합뉴스		2024-05-04
월간미술 6월	월간 미술		
아그네스 마틴이 남긴 것들	하버스 바자	안서경/ 안동선	2024-05-03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하버스 바자		
6월의 풍경을 담은 초여름 전시 4 -초여름의 긴긴 낮을 채우는 4곳의 전시.	얼루어 코리아	에리더 이재윤	2024-06-01
아그네스 마틴: 완벽의 순간들 Agnes Martin: Moments of Perfection	아트인컬처		

※ 솔올미술관 및 전시 관련 200여 개의 기사 보도

V4.5N5

- **서울미술관 공식 인스타그램** ([@sorolartmuseum](https://www.instagram.com/sorolartmuseum))
- **서울미술관 공식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rolartmuseum)



VI. 굿즈

VI.1 서울미술관 굿즈

VI.2 전시 굿즈

VI. 솔올미술관 굿즈

- 개요: 솔올미술관 M를 활용하여 굿즈 제작
- 항목: 박스 2종 (화이트, 그레이), 만년필(솔올미술관 X LAMY), 메모패드, 노트, 배지(4종), 엽서(4종)
- 제작사: 주식회사 핀어웨이큰



박스(그레이) 디자인: 헤이조

VI. 전시 굿즈

- 개요: 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작품 아트엽서 및 아트프린트 굿즈 제작
- 항목: 아트프린트 아그네스 마틴 3종, 정상화 2종, 아트엽서 아그네스 마틴 4종, 정상화 2종
- 제작사: 주식회사 비아트컴퍼니



Agnes Martin, Untitled #9, 1990, Acrylic and graphite on canvas, 182.6 x 182.6 cm
© Estate of Agnes Marti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SOROL AM

Sorol Art Museum



Chung Sang-Hwa, Untitled #8-3-12, 1998, Acrylic on canvas, 162.2 x 130.3 cm © Chung Sang-Hwa, Image: Gallery Hyundai

SOROL AM

Sorol Art Museum

VII. 시설 관리

VII.1 공조기 시스템

VII.2 보안 경비 시스템

VII.3. 소방 시스템

VII.4 승강기

VII.5. 수변 구간

VII.6 건물 관리

VII.7 방역

VII.8 주차 관리

VII.1 공조기 시스템

구분	기기	위치	온습도 설정 값	기타사항	재열코일 사용 여부
1. 공용부	공조기 / 1기	지하층 기계실	온도 25-26도 습도 10-30%	가습기 미사용, 제습모드 없음	N/A
2. 기획전시실	공조기 / 1기	지하층 기계실	온도 21-22도 습도 30-40%	가습기 미사용, 제습모드 없음	하절기에만 일부 사용 (비용 문제로 임시 사용)
3. 상설전시실	공조기 / 1기	옥상	온도 22-24도 습도 20-40%	가습기 미사용, 제습모드 가능	N/A
4. 기타	자립형 항온항습기 / 1기	지하층 수장고	온도 21-22도 습도 45-50%	N/A	N/A

VII.2 보안 경비 시스템

구분	위치	출입문 개수
1. 외부출입문 출입통제 시스템	지하층	2
	1층	6
	2층	5
2. 내부용 출입통제 시스템	1층 사무실	2
	1층 락카, 작품보관실	2
	2층 세미나실, 창고, 작품보관실	3
	2층 기획전시실	2
	2층 상시전시실	2
	1층 전시실 (리모컨 시스템)	1
3. 경비 작동 시스템	1층 정문	1
	지하층 지하출입문	1

VII.3. 소방 시스템

(소방안전 관리자: 강호석)

구분	위치	개수	종류
1. 수신기	지하층 방재실	1	P형 수신기
2. 감지기	1층 사무실	2	차동식 열감지기
	1층 전시실	8	광전식 연기감지기
	1층 공용부	6	광전식 연기감지기
	2층 기획전시실	18	광전식 연기감지기
	2층 상시전시실	4	차동식 열감지기
	2층 공용부	23	광전식 연기감지기 15개, 정온식 열감지기 8개
	세미나실	1	차동식 열감지기
3. 옥내소화전	1층	3	
	2층	4	
	지하층	1	
4. 송수구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면	1	
5. 방화셔더	2층	5	기획전시실 앞, 2층 계단 앞, 세미나실 앞, 발코니 앞, 복도

VII.4 승강기 (승강기안전관리자: 강호석)

구분		개수	히스토리	기타 정보
관람객용	실내용 승강기	1	2회 고장신고 이력, 현재 정상 운행	- 책임보험 가입기간: 2024. 11. 30.까지 - 유지보수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실외용 승강기	1	수회 고장신고 이력, 누수로 인한 쇼트로 정지 상태	
화물용	화물용 승강기	1	유지보수업체에서 수회 점검 및 수리, 현재 정상 운행	- 비상전화 1개 회선 (미술관 4개 회선 중 1개 사용 중) - 유지보수업체 : 삼양엘리베이터

VII.5 수변 구간

1. 거울 연못 위치와 참고사항

위치	급수 및 배수 가능 여부
정문 앞	자체 급수 및 배수 가능
사무실 앞	자체 급수 및 배수 가능, 뒷편 연못으로 펌프 가능
사무실 뒤, 1층 전시실 측면	자체 급수 및 배수 불가능

2. 거울연못 녹조 관리

항목	내용
발생 기간	4월 경부터 9월 경까지 녹조 발생
발생 원인	수온 상승, 연못 정체, 새로운 물 유입의 한계
관리 방법	녹조방지제 투여 및 새로운 물 투입은 초기에만 효과가 있었음
기타	고수온기에는 날마다 바닥을 밀대로 밀어야 하며 분리된 녹조는 뜰채로 제거함

VII.6 건물 관리

구분	위치	청소 방법
1. 유리	내부 유리	세정제 없이 깨끗한 수돗물로 밀대와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 가능
	내부 유리 난간	내부 유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소 가능
	외부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여 밀대와 수건으로 청소 가능
2. 바닥	로비 및 복도 바닥	기름걸레 사용 금지, 빗자루와 물걸레만 사용, 쓰레기는 빗자루로, 흙먼지는 마대 사용
	1층 전시실 바닥	로비 및 복도 바닥과 동일한 방법
	2층 복도 바닥	로비 및 복도 바닥과 동일한 방법
	기획전시실 단풍 나무 바닥	빗자루질, 물걸레질, 기름걸레질 모두 가능
	상시전시실 나무 바닥	물걸레질만 하여 신발 자국 없이 유지

VII.7 방역

구분	위치	청소 방법
1. 전시실	먼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 마대질로 먼지 제거, 벌레 발생 예방
	날벌레	외부 출입문 관리로 파리와 하루살이 등 진입 방지
	기어다니는 벌레	세스코 약제 사용
	거미줄	먼지, 날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관리가 이행되면 거미줄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술관 내부	내부 전반	전시실 방역 관리와 동일
	화장실, 수유실, 탕비실	세스코 약제 사용
3. 미술관 외부	외부 벽면 및 판석 사이	세스코 약제 투입
	음식물 쓰레기 차단	음식물 쓰레기 차단 및 철저한 외부 청소를 통해 쥐와 고양이 차단
	반려견 배설물 관리	반려견 배설물을 매일 청소하여 공원 청결 유지

VII.8 주차 관리

구분	내용
1. 주차 시스템	가. 관리업체: 아마노코리아 나. 기존 주차비는 무료로 운영되었고, 차후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사용 가능 다. 지상주차장 주차대수 : 58대 (장애인주차 2대 포함)
2. 주말 및 성수기 주차 관리	가. 직원들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도로변 주차하도록 권유 나. 주차장 진입도로에 6대 주차가능 (해당 위치에 양방향 차량 이동 가능함) 다. 공원관리실 진입구간에 6-8대 주차가능 라. 외부승강기 1층 도로변에 15-20대 주차가능

VIII. 예산 편성 및 운영

VII.1 예산 개요

VII.2 수익금 세부 내역

VII.3 지출 총괄표

VII.4 전시 지출 세부 내역

VIII.1 예산 개요

단위: 원

구분	입금액
합계	4,521,201,509
1. 운영자금	4,000,000,000
2. 수익금	520,310,592
3. 예금이자	890,917

총입금액	지출액	잔액
4,521,201,509	3,988,277,709	532,923,800

VIII.2 수익금 세부 내역

단위: 원

구분	계	카드	현금	예금이자
합계	520,310,592	505,227,487	505,227,487	36,388
카페	76,221,642	74,866,142	74,866,142	
굿즈	3,348,000	3,348,000	0	
도록	5,436,000	0	5,436,000	
입장권	435,304,950	427,013,345	8,291,605	

VIII.3 지출 총괄표

1. 인건비	1,000,083,834
급여	593,536,163
외부용역	376,836,597
퇴직적립금	29,711,074

2. 세금 및 수수료	420,072,011
부가가치세	268,037,871
송금수수료	3,215,450
법인세	18,589,340
소득세	30,000,030
사회보험료 등	100,229,320

3. 운영비	764,734,034
서울사무소	89,018,286
미술관 운영	206,101,860
사무실 운영	10,633,804
사이니지	118,977,072
웹사이트	2,811,400
디자인	92,500,000
카페 운영	83,959,234
기장수수료	19,800,000
카드결제	131,228,708
간담회비	1,006,200
기타운영비	8,697,470

4. 여비	27,772,442
급여	15,965,373
외부용역	11,807,069

5. 행사 홍보	164,487,510
행사 운영비	73,123,620
리플렛	17,937,170
홍보비	73,426,720

6. 전시	1,611,127,878
전시	1,611,127,878

계	3,988,277,709
----------	----------------------

VIII.4 전시지출 세부내역

루치오 폰타나

계	723,979,697
기획료	○
작품대여료	92,375,838
전시조성공사	244,020,245
운송료	164,094,400
보험료	85,205,968
전시도록	52,970,008
컨디션 리포트	4,377,600
기타 운영비	80,935,638

곽인식

계	10,827,170
기획료	○
작품대여료	○
전시조성공사	○
운송료	3,245,000
보험료	2,016,000
전시도록	5,566,170
컨디션 리포트	○
기타 운영비	○

VIII.4 전시지출 세부내역

아그네스 마틴

계	836,158,211
기획료	108,031,540
작품대여료	71,152,965
전시조성공사	90,320,600
운송료	384,264,554
보험료	101,057,180
전시도록	39,937,490
컨디션 리포트	5,472,000
기타 운영비	35,921,882

정상화

계	28,093,800
기획료	0
작품대여료	0
전시조성공사	0
운송료	4,950,000
보험료	9,176,000
전시도록	12,548,800
컨디션 리포트	0
기타 운영비	1,419,000

IX. 외주 협업사 정보

IX. 외주 협업사 정보

구분		업체명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담당자	연락처
사이니지		앤드		김준지 실장	neo7780@aandd.co.kr 010-7101-9286
굿즈 제작		핀어웨이큰	https://pinawakens.com https://www.instagram.com/pinawakens	김고은 대표	goeun@pinawakens.com 010-7134-2787
가구 제작	카페 가구	홀앤홀브	https://holnholb.com https://www.instagram.com/holnholb	최경덕 대표	holbein81@gmail.com 010-4222-8113
	물품보관함	석운동	https://www.instagram.com/seokundong	김지원 대표	seokundong@gmail.com 010-9386-0679
어린이 교육		조이뮤지엄	https://joymuseum.modoo.at https://www.instagram.com/joymuseum2008	지효빈 대표	Adrian@sotongartlab.com 010-8959-8079

감사합니다